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간호학 석사 학위논문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

The Experiences of  
Dual-Income Nurse-Nurse Couples  
in Parenting Preschool Children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전공

김 지 혜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

지도교수 김연희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전공

김 지 혜

김지혜의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 정 혜 인

심사위원 김 주 현 인

심사위원 김 연 희 인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2023년 8월

## 감사의 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로, 두 아이의 엄마로 일과 양육을 하기가 쉽지 않은 날들이 많았지만, 어느덧 경력 13년 차의 간호사로 자리매김하며 불혹의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꿈꾸던 그때, 대학원 전공과목인 ‘상급간호관리와 리더십’을 소개해주시며 간호 리더로서의 꿈을 심어주신 서꽃샘 유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호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유엠님과 몇 년 동안 함께 하면서 진정한 리더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의 간호부원장을 역임하신 김연희 교수님을 믿고 망설임 없이 선택한 대학원 진학은 저를 더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2년 반 동안 함께한 김연희 교수님! 방학 때도 쉬지 않고 코칭을 비롯한 수업을 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힘들지만, 교수님을 만나는 날에는 저와 동기들이 오히려 큰 에너지를 얻었고, 그 기운을 동력으로 삼아 논문까지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와 동료들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학 때 무심코 받을 들었던 질적연구방법론 워크샵은 놀랍게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학위논문의 방향을 정하는 또 한 번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저 없이 질적 연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질적 연구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고 직접 써 보는 경험이 중요함을 강조하신 김주현 교수님! 덕분에 질적 연구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교수님과 논문을 쓰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 연구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시어 사소한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단어 하나하나, 의미 하나하나도 함께 고민해주시던 교수님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질적 연구에 갖 받을 들인 새내기 연구자로서 교수님을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의 관심과 열정적인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논문 진행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매끄러운 논문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해주신 김정혜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연구방법론 수업 때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훌륭한 가르침을 통해 연구를 알차게 할 수 있었고, 더 나은 논문이 되도록 한 줄 한 줄 읽어보시고 코멘트 해주시는 교수님의 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학위 논문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주말에도 쉴 새 없이 논문을 봐주시고 ‘정말 잘하고 있다’ ‘논문이 구슬처럼 예뻐지고 있다’ ‘고생 많았다’ 응원해주신 김연희 교수님

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백 페이지에 육박하는 논문을 수없이 읽으시며 옥구슬처럼 다듬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않으시는 교수님의 열정에 저 또한 지칠 때마다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함께 공동 연구했던 인연으로 학위논문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김윤희 간호사님, 저의 도움 요청에 항상 반갑게 응답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 김연희 교수님, 김정혜 교수님, 김윤희 간호사님 그리고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김주현 교수님! 모두 ‘질적 연구를 위해 한배를 탄’ 제게는 정말 소중한 인연입니다.

간호사이자 부모로 바쁜 가운데 연구에 참여해주신 간호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흔쾌히 연구를 위해 허락해주시고, 의미 있는 경험을 들려주셔서 알찬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결심한 엄마에게 수업과 과제는 잘했는지, 논문은 잘 쓰고 있는지 오히려 엄마를 챙기며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해 준 아들 지훈이와 딸 지유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공부하는 며느리를 위해 손주들 뒷바라지를 해주신 어머니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 년 넘게 손주들을 돌봐주신 어머니가 논문을 쓰는 내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지금까지 간호사 김지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신 남편과 친정 부모님, 시아버님을 비롯하여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여덟’인 상급간호관리와 리더십 1기 동기들! 든든한 왕언니 형건, 완벽한 언니 재숙, 든직한 친구 연숙, 진솔한 새미나, 천하무적 오뚝이 계민, 뽕망 은미, 차분하고 꼼꼼한 막내 기주. 그대들이 있어 정말 든든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3년 8월

김지혜 올림

## 국문초록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삶에서 자아실현의 기회가 있지만 동시에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간호사의 사직률이 줄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강한 업무 강도와 임신, 출산, 양육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한편, 남자 간호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간호사-간호사 부부를 종종 만날 수 있다. 간호사 부부는 부부이자, 서로의 직업을 공유하는 동료이므로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와는 생활 방식과 양육 경험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한 양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간호사-간호사 부부이자 한 명 이상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간호사 8명으로 자료수집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미취학 자녀를 양육한 공통점이 있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개인 심층 면담으로 반 구조화된 개방적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고, 면담은 1회~2회 시행하였다. 자료분석은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근거로 자료수집과 분석을 순환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의미 있는 진술은 222개, 43개의 하위 주제, 13개의 주제,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6개의 범주는 ‘동료이자 부부, 간호사-간호사 커플에게 아이가 생김’,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이기에 더불어 이루어지는 양육’, ‘병원이라는 굴레에서 살아가는 간호사 부모’, ‘또 다른 굴레 코로나 팬데믹’, ‘일과 양육의 안정 궤도에 진입함’, ‘다음 차례의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모를 위하여’ 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사 부부에게 필요한 병원 차원의 양육 정책과 지원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간호사, 부부, 미취학 자녀, 양육, 질적 연구

# 목 차

감사의 글 .....	i
국문초록 .....	iii
목차 .....	iv
표 목차 .....	vi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문제 .....	3
II. 문헌고찰 .....	4
1. 맞벌이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 .....	4
2. 간호사의 양육 경험 .....	6
3. 현상학적 연구와 Colaizzi 분석방법 .....	7
III. 연구방법 .....	9
1. 연구설계 .....	9
2. 연구자의 경험적 배경과 연구준비 .....	9
3. 연구 참여자의 선정 .....	9
4. 자료수집 .....	10
5. 자료분석 .....	12
6.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	14
7. 연구의 엄밀성 확보 .....	15
IV. 연구결과 .....	17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7

2.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 .....	18
3. 현상학적 글쓰기 .....	49
V. 논의 .....	53
VI. 결론 및 제언 .....	58
참고문헌 .....	59
부록 .....	69
1. 심의결과 통지서 .....	69
2. 증례기록지 .....	73
3. 연구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	76
4. 연구 대상자 모집공고문 .....	88
영문초록 .....	89

## List of Table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	17
Table 2. Categorization of ‘The Experiences of Dual-Income Nurse-Nurse Couples in Parenting Preschool Children’ .....	1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과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중도 상승추세이다.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13~17세, 7~12세, 6세 이하 순으로 높았다(Statistics Korea, 2022). 이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돌봄의 손길이 더욱 필요하여 맞벌이의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Lamb (1986)에 의하면 과거의 대가족 형태에서는 여러 가족 구성원이 자녀를 함께 양육하였으나,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부부 둘만의 힘으로 자녀 양육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었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분담과 책임도 증가하였다(Kim & Cho, 2000에 인용됨).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이후 자녀 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맞벌이 여성은 직장, 가사, 주 양육자 등 다중 역할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Kim et al., 2018; Kim, 2003). 맞벌이 여성에게 자녀 양육은 취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스트레스 요인(Kim & Yoon, 2000; Kim et al., 2011)이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미취학 아동은 운동, 언어,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발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양육자의 스트레스도 매우 높은 시기이다(Lim et al., 2017).

간호사는 동일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94.9%로 학교 여교사(2021년 66.8%), 여성 약사(2020년 62.2%)보다도 훨씬 높은 편이다(Shin et al., 2022; Statistics Korea, 2022). 기혼간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양육으로, 3교대를 하는 근무 특성상 일반 기혼 취업 여성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Kwon, 2010). 간호직은 전문직으로 직업의식이 강하고 조직체계가 엄격하여 과중한 업무량 속에서 고도의 긴장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하며, 높은 책임감으로 인하여 고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Kim, 2012; Kwon, 2006).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는 퇴근 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간호사에게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Oh et al., 2013).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문제는 높은 이직 의도로도 이어진다(Kang & Kim, 2011; Son et al., 2010). 반면에 간호사의 직장상사나 동료의 양육지지도가 만족스러울수록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 부담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Kim & Kwon, 2010; Park et al., 2014). 기혼의 경력자가 양육문제로 이직하면 간호조직의 생산성도 저하된다. 또한, 신규간호사 인력 채용 비용이 증가하고 그들이 숙련될 때까지 간호의 질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Lee, 2013), 조직구성원이 계속 바뀌므로 동료간의 지지도 떨어진다(Song, 2016). 따라서 숙련된 경력 간호사가 이직하지 않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조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의 양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양육 스트레스, 역할갈등 등과 관련하여 시행된 양적 연구가 대부분으로(Kang & Kim, 2011; Kim & Kwon, 2010; Oh et al., 2013; Park et al., 2014) 생생한 양육 경험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간호사의 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로는 기혼간호사의 육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Cho, 1996), 3교대 근무 간호사의 자녀양육 체험(Lee et al., 2015), 그리고 3교대 간호사의 양육 갈등 경험(Kim et al., 2018)이 있었다. 맞벌이 간호사 부부의 양육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3교대 근무 간호사 남편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Park, 2014), 맞벌이 간호사와 간호사가 아닌 남편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Lee, 2016)로 양적 연구였으며, 간호사-간호사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간호사는 여성 주류의 집단이기에 동일 직종의 부부가 탄생할 기회가 흔치 않았으나, 2022년 전체 면허간호사 중 남자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어서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마스크를 통한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사례가 몇몇 소개되었고, 간호사-간호사 부부를 주변에서 종종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Lee, 2011). 이란에서 시행된 간호사-간호사 부부와 배우자가 간호사가 아닌 부부의 결혼만족도 비교 및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는 예측 요인 비교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배우자가 간호사가 아닌 부부에 비해 간호사 부부가 더 높았고, 교대근무자, 월 야간 근무 횟수가 적은 사람, 개인 주택 보유자가 더 높았다. 또한, 소득수준과 결혼만족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Mamene et al., 2022). 간호사-

간호사 부부는 부부이자, 서로의 직업을 공유하는 동료이다. 간호사 부부는 직업 특성상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와는 생활 방식과 양육 경험이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양적 연구를 통해서도 생생한 양육 경험을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내 간호사면허 소지자로서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미취학 자녀의 양육 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을 기존 간호사 부부들이 참조할 수 있고, 예비 간호사 부부에게 간접 경험을 제공하여 양육 준비에 도움이 되며, 양육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은 어떠하며,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

## II. 문헌고찰

### 1. 맞벌이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

맞벌이 부부의 사전적 의미는 양쪽 모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부부이고, 미취학 아동은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의미하며, 양육은 아이를 보살피서 자라게 하는 것이다(표준국어대사전, 2022).

2020년 여성의 고용률은 50.7%로 20년 전 대비 3.7% 상승하였고, 남성 고용률은 69.8%로 20년 전 대비 1.0% 하락하였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2021).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중도 53.4%로 2015년에 비해 6.1% 상승하였다(Statistics Korea, 2016, 2022).

맞벌이 부부는 사회활동을 통해 심리 사회적 보상과 가정의 소득 증가 등의 경제적 복지 향상과 함께 부부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를 얻고 자아의 가치를 인식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Lee & Kim, 2014). 반면, 자녀 양육의 어려움도 경험한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고에 의하면 2021년 6월 말 기준 조사 참여 어린이집 3,300개소 중 98.4%가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었다(Yang et al., 2021). 또한, 맞벌이 부부는 직장생활과 양육을 동시에 하느라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끼는 등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한다(Kim et al., 2013; Kim et al., 2011; Lee & Yeo, 2022). 특히 여성은 일, 가사, 양육 세 가지를 모두 해야 하는 부담감(Kim & Chang, 2008)을 경험하며, 가족 스트레스도 아내가 남편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05; Joo, 2011; Kim & Cho, 2000). 이러한 출산·육아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아이돌봄 서비스 등 여러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Eom, 2021).

일-양육 양립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지지도 중요한데, 배우자의 지지는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돕고 가족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주며 특히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자원이 높을수록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Kim & Cho, 2000; Park, 2015).

맞벌이 부부의 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로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 연구(Kim et al., 2013)는 생후 12개월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며 5년 이상 직장에 다니고 있는 8명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Colaizzi의 자료분석 방법에 따라 시행되었다. 도출된 주제모음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삶’, ‘죄책감’, ‘아이 교육에 관한 정보와 시간 부족으로 불안함’, ‘부족한 엄마로 낙인찍힘’, ‘소원해진 가족관계’, ‘지쳐가는 삶’, ‘하루하루 버티나감’ 등이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자녀에 대한 죄책감, 불안함을 느끼며 육아로 인한 가족갈등으로 지치고 버티나가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모의 첫 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Kim & Chang, 2008)에서는 36개월 이하의 첫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 16명을 대상으로 Max van Manen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어머니로서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기회이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게 하는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출된 주제모음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삶을 재조정함’, ‘첫 아이는 내게 행복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줌’, ‘아이 양육 때문에 직장을 계속 다닐지에 대한 갈등이 생김’, ‘주위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양육이 이루어짐’, ‘부모님에겐 눈치 보고 아이에겐 자신 없음’, ‘일터에서 내가 진정 살아있음을 느낌’, ‘일하는 엄마이므로 양보다 질에 집중하게 됨’, ‘일하는 엄마로서 겪는 마음 상함’,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달려감’ 등이었다.

2쌍의 부모(4명)를 대상으로 수행된 영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Eom, 2021)에서는 ‘당연한 맞벌이, 낮아지는 기대치’, ‘혼자서는 불가능, 언제나 보조 양육자’, ‘떠밀리는 아기, 재촉하는 부모’의 세 가지 상위범주가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나’에서 ‘우리’로 삶의 엔돌핀을 통한 행복을 찾아가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배워가는 가족의 과정이 의미화되었다.

주 양육자인 아버지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Heo, 2018)는 만 2세~만 5세 자녀를 둔 맞벌이 남성 4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들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양육에 참여하였다. 주 양육자 아버지가 경험한 양육은 ‘주 양육자 아버지의 새로운 도약’ 그리고 ‘주 양육자 아버지로 한걸음 성장하기’로 의미화되었는데 친

구 같은 아빠로서 자녀를 이끌고 아이들 위주로 삶이 변화되고 양육의 주체자로 참된 부모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의미 있게 도출되었다. 또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양육 경험이 단단해지고, 아내의 임신과 출산,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주변 시선으로부터도 당당해지게 되었다.

맞벌이 부부 중 같은 직업을 갖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Cho (2015)의 연구에서 여군 12명과 남군 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한 결과 군인 부부는 양쪽 모두 근무지 이동을 함으로써 안정된 가정생활이 어렵고 여군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가족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여군의 배우자인 남군은 적극적으로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군인 부부는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 2. 간호사의 양육 경험

환자의 질병과 고통, 죽음을 다루는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업무 강도는 점차 높아지고, 기혼간호사는 출산·양육·가사 노동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간호사는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가사를 도맡아 하여 자신을 가정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외출타기 같은 힘겨운 삶으로 인식하였다(Kang & Lee, 2012). 3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를 하는 부서에 근무할 경우, 자녀 보육 시설 이용의 어려움 등의 현실적인 자녀 양육문제가 뒤따르며, 여전히 육아 부담도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은 실정이다(Cho, 1996; Choi, 2005; Kim, 2012; Park et al., 2014; Park, 2015). 이러한 자녀 양육문제로 인해 간호사는 직장생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한다(Son et al., 2010).

선행 연구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죄책감은 다른 연령대보다는 20대가, 미취학 자녀 수가 2~3명일 때, 결혼만족도와 직장만족도가 불만족스러울수록, 그리고 배우자의 양육에 대한 지지가 불만족스러울수록 높았다(Park et al., 2014). 또한, 수간호사보다 일반간호사에서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더 높고, 주말 근무횟수가 많을수록 부모 역할 수행 부담감도 증가하였다(Kim & Kwon, 2010). 반면에, Kim과 Kwon (2010)의 연구에서 남편과의 관계만족도와 결혼만족도 및 가족 구성은 자녀 양육 스트레스, 부모 역할 부담감 및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혼간호사의 육아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한 Cho (1996)의 연구에서는 육아 경험이 ‘기쁨’, ‘가족유대감’, ‘모아애착’, ‘이해력’, ‘힘듦’의 5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는데 자녀의 성장·발달을 보며 느끼는 긍정적인 경험과 힘듦이 공존하고 있었다.

Lee 등(2015)의 3교대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자녀 양육 체험 연구에서는 ‘어려움 속에서 책임을 다하려 함’, ‘엄마 도리를 다하지 못해 죄스러움’, ‘아이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됨’, ‘간호직에 대한 애증을 느낌’, ‘고마움과 서운함이 공존함’이 도출되었다. 간호사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나 갈등을 개인적 문제로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자녀 양육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어린 두 자녀를 둔 상급종합병원 3교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양육 갈등 경험 연구(Kim et al., 2018)에서 도출된 6가지 주제 모음은 ‘아이의 소소한 바람조차 채워줄 수 없는 안타까움’, ‘두 자녀 돌봄의 실패’, ‘아기 돌보미에 대한 고마움과 불편함의 양가감정’, ‘몸과 마음이 부서짐’, ‘3교대 간호사에 적합한 양육 지원체계의 절실함’, ‘일과 양육의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함’이었다. 간호사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양육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은 항상 존재하였고, 3교대 간호사에게 적합한 양육 지원체계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처럼 간호사는 간호전문직으로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태도에 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h et al., 2013).

### 3. 현상학적 연구와 Colaizzi 분석방법

인간은 하나의 해석적 틀 속에서 실제 혹은 현상을 이해한다. 현상학(Phenomenology)은 어떤 상황에 처한 인간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는 철학의 사조이고(Shin et al., 2004), 살아있는 인간의 경험을 기술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실재에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방법이라고 하였다(Kim et al., 1999).

현상학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증진’으로 명상적인 사고를 기초로 행동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다(Kim et al., 1999에 인용됨). 현상학은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으며 지각된 경험의 사실들로 되돌아가는 여행으

로 살아있는 경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Lee, 2004).

현상학적 연구란 인간의 체험을 그대로 살펴보고, 그 체험을 바로 그 체험이게 만드는 본질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이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이를 통해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Creswell, 2007). 현상학적 연구는 철학적 사조로서의 현상학의 원리를 질적 연구 수행에 활용한 일종의 응용현상학이며(Lee, 2014), 반성(reflection), 직관(intuiting), 판단중지(bracketing)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을 밝히는 귀납적 연구이다(Lee, 2004).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인간이 사물들을 이해하는 인식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추구한다(Shin et al., 2004). 연구자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본질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을 전개한다. 본질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은 참여자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경험하였는가로 구성된다(Creswell, 2007).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방법은 연구자의 수 만큼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구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현상학적 질문의 형성, 체험 자료의 수집, 자료 분석, 글쓰기의 4단계를 거친다. 지오르기(Giorgi, 1985, 1997), 콜레지(Colaizzi, 1978), 반 매넨(van Manen, 1990, 1997)의 연구방법이 주로 많이 제시되고 있다(Lee et al., 2018). 현상학적 분석방법들은 개개인의 의식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닌 상호주관성을 통하여 본질 구조를 파악하는 일련의 반성 과정을 거쳐 발견된 결과에 대해 현상학적 기술을 한다는 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hin et al., 2004).

현상학적 연구는 철학적 배경과 연구방법에 있어서 양적 연구와 구별되며(Ko, 2004), Colaizzi (1978)는 현상학적 심리학의 방법으로 현상학적 기술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현상학적 기술의 방법’이란 일상적인 생활세계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체험 현상과 접촉을 통하여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다양한 체험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Lee, 2014). Colaizzi의 분석방법은 연구자의 성찰 과정을 강조하고, 연구자의 지각도 분석에 포함 시키며,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Lee, 2005).

### Ⅲ.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개인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 2. 연구자의 경험적 배경과 연구준비

연구자는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병동과 외래 등 14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고, 두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의 한사람이다.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고, 질적 연구 논문을 다수 읽고 고찰하면서 현상학적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질적 연구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 또한, 대한 질적연구학회의 회원으로서 질적 연구 워크숍과 학술대회를 통해 견문을 넓혔다.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전문가들과 함께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개월간 9회의 강의, 학습 및 실습을 하였고, 이 과정을 통하여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함께 학습한 연구전문가와 함께 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2022년 11월 대한질적연구학회지에 게재하였다. 또한,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의 면담 및 자문을 통해 조언을 받았다.

#### 3.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S시 소재의 병원에 재직 중인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지인’을 통한 소개로 눈덩이 표본추출을 하였고, 연구자가 재직 중인 임상연구실시기관의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 대상자 모집의 경우 연구 대상자 모집공고문을 원내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국내 간호사면허 소지자로서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에 해당하는 자
- 2)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양육 경험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자
- 3)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자
- 4)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녹음과 필사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

연구 대상자 선정의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선천성 질환이 있거나 36주 미만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 간호사

질적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관한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새로 수집되는 자료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전혀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론적 포화’가 기준이 된다(Lee et al., 2018). 본 연구에 참여한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에 해당하는 남자 간호사는 3명, 여자 간호사는 5명으로 총 8명이었고, 이들 중 부부는 1쌍이었다. 이는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도출되지 않고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수집된 숫자를 의미한다. 부부는 각각 따로 면담을 시행하였고, 연구 내용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가 종료되기 전까지 부부가 면담내용을 공유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양육 경험의 차이를 배제하고자 선천성 질환이 있거나 36주 미만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 4. 자료수집

간호사 부부에게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며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2023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개인 심층 면담을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면담할 장소와 시간을 정하였고, 면담할 때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담 질문지를 제공하였다. 면담은 주변의 방해가 받지 않는 연구자의 사무실 또는 참여자의 자택 등에서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였다.

개인 심층 면담 시작 전에,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자, 연구목적, 면담 진행 과정, 예상 소요시간 등 연구에 관한 소개를 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면담에 응해준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입사 시기와 결혼 시기, 자녀 수 등 일반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로서 자녀 양육을 경험한 내용을 반구조화된 질문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총 면담 횟수는 11회였고, 이 중 2회는 메일로 추가 질문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는 등 순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면담 시간은 39분~74분 정도로 1회 평균 면담 시간은 53분이었다.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반구조화된 개방적 질문을 시행하였다.

“시작에 앞서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간호사-간호사 부부로서의 맞벌이 경험은 어떠한가요?”와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로서의 자녀 양육 경험은 어떠한가요?”와 같은 도입 질문으로 시작하여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로서 자녀 양육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를 주 질문으로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로서 자녀 양육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와 “최근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19, COVID-19)로 인해 자녀 양육 경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를 추가로 사용하고,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로서 자녀 양육을 하면서 추억하고 싶은 경험은 무엇인가요?”와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자녀 양육을 위해 어떤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를 보조 질문으로 사용하였다.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하고자 한 것 중 하지 못한 것이나 더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로 마무리 질문을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자의 선입견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참여자의 순수한 경험을 포착하기 위해 평온하게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였고, 참여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경청과 겸손하고 안정된 태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면담의 모든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휴대폰 녹음앱을 이용하여 녹음을 시행하고, 녹음된 내용은 면담이 종료된 후 컴퓨터 앱을 통해 문자로 변환하여, 녹음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취하면서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참여자의 언어 그

대로 필사하였다. 면담 시 참여자의 표정, 어조 등의 비언어적인 반응 등도 메모하여 분석 시 참고하였다. 개인 심층 면담 이후 분석한 자료 중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3명의 참여자에게 추후 면담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시행하고, 수집되는 자료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충분히 '포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면담을 종료하였다. 면담 종료 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승인을 받고, 참여자가 연구주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고자 노력하였다.

##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 참여자들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이해와 그 의미를 찾고자 Colaizzi (1978)가 제시한 자료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 1) 1단계: 자료 전체를 검토

면담할 때 기록해 두었던 메모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한 후, 녹음 내용과 전사 자료를 수차례 듣고 읽으며 참여자가 진술한 경험에 대하여 전체적인 느낌을 얻고자 하였다.

### 2) 2단계: 중요한 진술 추출

참여자의 전사 자료와 면담 기록을 통해 반복적으로 진술되는 내용과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 구절들을 구별하여 밑줄을 긋고 중요한 진술을 추출하였다.

### 3) 3단계: 의미 형성

밑줄 그은 구절과 문장들의 의미를 숙고하면서 중요한 진술들에 대한 창조적 통찰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여 연구자의 언어로 구성하되, 원자료의 의미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 4) 4단계: 주제 모음으로 정리

개별적인 자료에 대한 앞 단계의 작업을 반복하면서 구성된 의미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 ‘주제 모음’으로 정리하고, 주제 모음으로부터 ‘범주’를 도출하였다.

5) 5단계: 포괄적인 기술

지금까지 분석된 모든 결과를 통합하여 탐구주제를 철저히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주제가 참여자들의 양육 경험과 맥락적으로 일치하는지, 범주화 과정에서 모순은 없었는지 원자료와 비교하며 참여자의 경험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였다.

6) 6단계: 연구주제의 근본 구조 확인

탐구주제에 대한 포괄적 진술을 가능한 근본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명료한 진술로 구성하였다.

7) 7단계: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인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3인에게 연구결과에 대하여 참여자의 견해를 질문하였다. 연구결과가 참여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연구결과에 포함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전문가에게 현상의 최종적인 포괄적 기술을 확인받았다.

본 연구에서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자료의 의미 있는 진술 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애가 버스에 조금 치였었는데 와이프랑 저 둘 다 이브닝 근무였고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이 오는 시간은 약 2시간 전이어서 미리 부르지는 못하고, 중간에 아기 엄마가 잠깐 애만 병원에 데리고 가고, 교통사고 처리만 하고 다시 (직장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중략) 정말 난감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면서 중간에 나오지 못하는 근무로 조금은 저 자신에 대해서도 애들을 챙겨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과 미안함이 컸습니다.” <참여자 1>

연구자는 의미 있는 진술을 다시 반복하여 읽으면서 진술된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 ‘자녀가 아플 때 당장 달려갈 수 없는 간호사 부모’로 재진술 하여 하위 주제를 추출하였다.

“특히나 교대 근무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하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하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되는데, 사실 애 때문에 그거야 제 사정이고, 누군가는 오프가 잘려서 나와야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조금 그냥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부탁하면서도 많이 미안하죠. 근데 이제 아기 때문에 그런 거면 많이들 이해해 주고 잘 바꿔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근무를 못 바꿔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너무 절망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참여자 3>

연구자는 의미 있는 진술을 다시 반복하여 읽으면서 진술된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 ‘자녀로 인한 근무 조정 시 동료와 상사에게 느끼는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재진술 하여 하위 주제를 추출하였다.

도출된 주제들의 공통된 요소를 확인하고 주제 모음으로 정리하여 ‘갑작스러운 아이의 발병이나 사고에도 발목을 잡는 근무 스케줄’로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포괄적으로 기술된 주제는 다른 주제 모음과 공통 요소를 확인하여 ‘병원이라는 굴레에서 살아가는 간호사 부모’로 범주화하였다.

연구자는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자료를 지속적으로 읽고, 연구결과에 대해 참여자의 견해를 확인하며 하위 주제와 주제 모음이 참여자가 진술한 의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 6.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104 0968-A-2022-010)과 연구자 소속 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2023-0102)을 거친 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시행하기 전에 모든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연구주제와 목적, 방법과 소요시간, 인터뷰 내용의 녹음 및 필사에 대해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참여자의 사생활과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참여를 존중하고 언제든지 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원하는 경우 이전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영구적으로 파기 가능함을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자료수집과 필사 과정에서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코드화하였으며, 동의서는 자필로 작성한 후 사본 1부를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연구자와 참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연구와 관련된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컴퓨터와 연구자가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하여 연구자만 접근 가능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 7. 연구의 엄밀성 확보

본 연구는 Lincoln과 Guba (1985)의 진실성(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과 중립성(neutrality)의 질적 연구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Lee et al., 2018에 인용됨).

첫째, 진실성은 신뢰성(credibility)을 의미하며, ‘연구결과가 실제로 그럴듯한가?’에 대한 것으로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불완전성과 부정확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담 전에 참여자와 신뢰를 형성하고, 편안한 환경을 위해 면담 장소와 시간을 참여자와 함께 정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적극적인 경청과 수용의 자세로 참여자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집하고 Colaizzi (1978)의 자료분석방법에 따라 7단계에 걸쳐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결과가 참여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와 일치하는지 연구 참여자 3명에게 재확인하고, 질적 연구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적용가능성은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으로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며,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다른 상황이나 맥락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해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심층 면담을 시행하여 자료를 포화시켰다. 참여자 한 사람을 면담한 후 내용을 바로 필사하고, 1차 코딩을 시행한 후 다음 참여자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때 1차 코딩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질문을 더하는 방식으로 하여 다음 참여자의 면담 시에 공통적인 경험을 찾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적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일관성은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이라고도 하며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과정의 일관성과 연구자의 연구시간과 기간,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그리고 연구자가 적합하게 관여되었는가를 검증하는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참여자와의 면담과 필사 등의 자료수집을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고, 연구자의 해석을 독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의 말을 인용하였다.

넷째, 중립성은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으로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며 연구자가 지닌 편견에서 벗어나 연구결과가 중립적으로 편견이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자녀 양육과 맞벌이를 하는 간호사로, 연구자의 간호사로서의 양육 경험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작용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자의 틀과 가정을 미리 인식하고 ‘괄호치기(bracketing)’를 통해 연구결과의 의미의 본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질적 연구전문가 교수로부터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았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간호사-간호사 부부이자 한 명 이상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면서 맞벌이를 하는 간호사 8명으로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면담 당시 참여자의 나이는 33~40세였다. 성별은 남성이 3명, 여성이 5명이었고, 총 경력은 8~14년이였다. 근무 형태는 교대 근무자와 상근직이 각각 4명씩이었으며, 혼인 기간은 6~11년이였다. 휴직 경험은 출산과 육아 휴직 모두 사용한 참여자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모두 여성이었으며, 출산 휴가만 사용한 참여자는 여성 1명이고, 휴직 경험이 없는 참여자 3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참여자 5명은 2명의 자녀가 있었고, 참여자 3명은 1명의 자녀가 있었다. 부부 합산 월수입은 8명 모두 701만 원 이상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N=8)

Variables	나이 (세)	성별	총 경력 (년)	근무 형태	혼인 기간 (년)	휴직 경험	자녀 수 (명)	부부 합산 월 수입 (만 원)
참여자 1	39	M	13	교대	11	무	2	≥701
참여자 2	37	F	14	교대	10	출산 & 육아	2	≥701
참여자 3	39	M	11	교대	6	무	1	≥701
참여자 4	36	F	13	상근	9	출산	1	≥701
참여자 5	40	M	10	상근	9	무	2	≥701
참여자 6	39	F	8	상근	9	출산 & 육아	2	≥701
참여자 7	40	F	13	상근	10	출산 & 육아	2	≥701
참여자 8	33	F	10	교대	6	출산 & 육아	1	≥701

## 2.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

본 연구는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 참여자들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이해와 그 의미를 찾고자 현상학적 접근 방법 중 Colaizzi (1978)의 자료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8명의 맞벌이 간호사의 양육 경험의 녹음된 내용을 전사한 후, 전사 자료를 수차례 읽고 들으며 참여자가 진술한 경험에 대해 전체적인 느낌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진술되는 내용과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하여 222개의 의미 있는 진술(meaningful statements)을 도출하였고, 이 문장들의 의미를 숙고하면서 중요한 진술들에 대한 창조적 통찰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여 연구자의 언어로 구성된 43개의 하위 주제(subtheme)가 도출되었다. 개별적인 자료에 대한 앞 단계의 작업을 반복하면서 구성된 의미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 13개의 주제(theme)로 통합하고, 이 주제로부터 총 6개의 범주(category)가 도출되었다<Table 2>. 6개의 범주는 ‘동료이자 부부, 간호사-간호사 커플에게 아이가 생김’,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이기에 더불어 이루어지는 양육’, ‘병원이라는 굴레에서 살아가는 간호사 부모’, ‘또 다른 굴레 코로나 팬데믹’, ‘일과 양육의 안정 궤도에 진입함’, ‘다음 차례의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모를 위하여’ 이다.

<Table 2> Categorization of ‘The Experiences of Dual-Income Nurse-Nurse Couples in Parenting Preschool Children’

Categories	Themes	Subthemes
1. Married nurse couples before and after children	1. The nurse couple : Colleagues who understand each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rriage to another nurse</li> <li>· Ease of communication with spouse</li> <li>· Understanding spouse’s difficulties at work</li> <li>· Taking advantage of shift work</li> </ul>
	2. Concerns and difficulties after child bir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dilemma of balancing work and family after childbirth</li> <li>· The mother: New mom exhaustion</li> <li>· The father: Parenting shifts after work shifts</li> </ul>
	3. Thoughts about sending child to daycare to return to 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cerns about placing child in daycare</li> <li>· Worrying about child spending long hours at daycare</li> <li>· Learning to accept daycare as a necessity</li> </ul>
2. Nurse couples as partners in parenting	4. The reality: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necessity of child care providers</li> <li>· Finding people to provide child care</li> <li>· Conflicts with child care providers</li> <li>· No time off for parents with young children</li> </ul>

Categories	Themes	Subthe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ing unable to leave work when child is ill or has an accident</li> </ul>
	5. Difficulties related to work schedu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ving trouble changing work schedules</li> <li>· Feeling bad and grateful to coworkers when requesting schedule changes</li> </ul>
3. Difficulties caused by the constraints of the hospital workplace	6. Challenges in working shif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mother's agony at having to separate from child for night shifts</li> <li>· The mother's guilt at not being able to spend more time with child</li> <li>· The mother's difficulty socializing with other mothers</li> <li>· The father's guilt at having to leave child with their grandparent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ear of transmitting COVID-19</li> <li>· Self-isolating for fear of infecting family</li> </ul>
4. Difficul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7. Struggling to keep child safe from COVID-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ing through childbirth and postpartum period alone</li> <li>· Feeling bad about child being born and raised during the pandemic</li> </ul>
	8. Taking care to protect patients from COVID-19 inf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miting family activities</li> <li>· Seeking less crowded places for outings</li> </ul>

Categories	Themes	Subthemes
5. Integr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9. The advantages of parenting in shif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th parents participating in day-care events</li> <li>· Enjoying alone time</li> <li>· Enjoying family outings on week-days</li> </ul>
	10. Being nurse par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ringing work habits home</li> <li>· Using professional knowledge in parenting</li> <li>· The problem of knowing too much in emergency situations</li> </ul>
	11. Making efforts as working par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mother's attempts to make up for her absence on days off</li> <li>· The father's active participation in parenting</li> <li>· Using dual income for child's benefit</li> <li>· Parenting together: Difficult but worthwhile</li> </ul>
6. For future working nurse couples	12. Inaccessible government policies for parenting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cerns about changes in work when returning after parental leave</li> <li>· Being unable to use the full parental leave period</li> <li>· Being unable to utilize reduced work hours, flexible work hours, family care leave</li> </ul>
	13. The need for child care support for nur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stitutional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li> <li>· 24-hour daycare facilities for shift workers</li> <li>· A work culture and policies that support nurses with children</li> </ul>

## 1) 범주 1. 동료이자 부부, 간호사-간호사 커플에게 아이가 생김

본 범주는 ‘공감 백배, 우리는 간호사-간호사 부부’, ‘자녀의 탄생으로 인한 고민과 고된 몸’ 2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 (1) 주제 1. 공감 백배, 우리는 간호사-간호사 부부

이 주제에서는 간호사 부부가 되기까지의 자연스러운 과정과 자녀가 있기 전까지의 생활을 그려내고 있다. 하위 주제는 ‘간호사-간호사 커플의 결혼’, ‘단어 하나로도 모든 것을 알아듣는 부부’, ‘간호사, 힘든 걸 알기에 애잔한 그대 마음 내 마음’, ‘자녀가 있기 전, 교대 근무라서 자유로운 삶’ 4개 이다.

#### 하위 주제 1. 간호사-간호사 커플의 결혼

대학에서 캠퍼스 커플로 인연을 맺은 참여자들은 병원 근무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 동료 간호사들은 입사 때부터 간호사 커플인 참여자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동료와 취미를 공유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기도 하였다. 부모님도 간호사가 특수한 직업인 만큼 서로 의지가 될 거라 기대하고 간호사 커플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대학교에서 만나 한 4년을 연애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저희가) 오래 만나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었고, 저희 병동에서도 입사할 당시부터 (제가) 사귀는 (간호사)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간호사 커플이라고 (동료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았습시다.” <참여자 1>*

*“부모님들은 엄청 좋아하셨어요. 어쨌든 직업군이 특수하니 둘이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서로 의지도 되고 좋을 것 같고... (중략) 되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어요.” <참여자 6>*

#### 하위 주제 2. 단어 하나로도 모든 것을 알아듣는 부부

같은 직업을 가진 간호사 부부는 병원 환경의 특성을 잘 알기에 업무적인 부분을 공유할 때 긴 설명이 필요 없었고,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할 때도 큰 에너지를 쏟지 않고도 말이 잘 통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알아주는 배우자에게 의지하고, 소통도 만족스러웠다.

“(부부 중) 한 쪽만 간호사인 경우에 일적인 얘기를 했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걸 저희는 그냥 단어 몇 개로 끝난다든가, 예를 들면 ‘아, 오늘 힘들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블리딩(출혈) 좀 있었어.’ 이러면 그냥 끝인 거죠, 상황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대화하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3>

“병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특수적인 곳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를 누군가한테 토로할 때도 병원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남편이 같은 병원에 있었으니 무슨 말을 하면 다 이해를 해서 (입사) 초기에는 의지를 좀 했어요.” <참여자6>

### 하위 주제 3. 간호사, 힘든 걸 알기에 애잔한 그대 마음 내 마음

참여자들은 부부이자 동료로서 대화가 잘 통하는 반면에 간호사의 업무 강도와 힘든 병원 근무 환경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 배우자가 겪는 업무상의 힘들에 애잔함을 느끼고 안타까워하였다.

“서로 너무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짠하다고 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까...” <참여자 3>

“와이프가 (저보다 늦게 입사해서) 연차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신입 간호사로 적응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거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조언이라는 게 또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설블리 조언을 하지 못하기도 해서 편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 5>

#### 하위 주제 4. 자녀가 있기 전, 교대 근무라서 자유로운 삶

결혼하고 자녀가 없던 시기에는 교대 근무의 이점을 살려 스케줄을 맞춰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배우자가 출근한 휴일에는 자신의 생활도 즐기는 등 편한 일상을 즐길 수 있었다.

“자녀가 있기 전에는 맞벌이를 해도 자기 생활이 있기 때문에 훨씬 편했습니다.”

<참여자 4>

“자녀가 생기기 이전에는 애가 없는데 똬들 못하겠어요? (웃음).” <참여자 5>

“제가 오프(휴가)를 신청하면 남편도 신청해서 (오프가) 나오면 (여행을) 가는 거고. 그래서 코로나(코로나19 상황) 전에는 3~4개월마다 해외에 가서 추억도 만들어오고 그랬는데.” <참여자 8>

#### (2) 주제 2. 자녀의 탄생으로 인한 고민과 고된 몸

이 주제는 자녀를 갖게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일과 양육에 대한 고민과 자녀가 태어난 후 수면 패턴이 정착되기까지 육아의 고됨이 드러나 있다. 다만, 남편이 퇴근 후에도 지친 아내를 위해 육아 교대를 하는 모습은 일반 부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하위 주제는 ‘첫 자녀를 갖게 되면서 시작된 일-양육 병행을 위한 고민’, ‘자녀의 탄생과 연속되는 불침번에 고단한 엄마’, ‘집에서도 양육을 위한 교대 근무가 이어지는 아빠’ 이다.

#### 하위 주제 1. 첫 자녀를 갖게 되면서 시작된 일-양육 병행을 위한 고민

첫 자녀를 갖게 된 부부는 교대 근무와 양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섰고, 주변에 간호사-간호사 부부로 자녀를 양육하는 동료는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하여 더욱 막막함을 느꼈다.

“임신하면서 ‘교대 근무와 육아를 어떻게 병행해야 하나’ 생각했던 것 같은데, 물어볼 데라고는 이미 다 키워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을 둔) 선생님들 외에는 없어서 어떻게 지나간다고 하지만 간호사 부부가 낳은 케이스는 없었거든요. 그 선생님들도 남편은 상근직 하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저와는 좀 많이 달라서... 참고할 만한 게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8>

### 하위 주제 2. 자녀의 탄생과 연속되는 불침번에 고단한 엄마

자녀를 만난 기쁨도 잠시, 엄마들은 모유 수유와 정착되지 않은 아기의 수면 패턴으로 인해 아기가 잘 때 쪽잠을 자거나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육체적으로 힘든 24시간을 보냈다.

“그제(모유 수유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2시간마다 먹이다 보니까 저도 잠을 못 자고 출산 휴가 동안에 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기를 먹이는 게 주가 되다 보니까.” <참여자 8>

“도와주는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아기 (태어난 지) 100일 되기 전이고 밤잠 없고 애는 낮이고 밤이고 계속 수유도 해야 하고 기저귀 가는 거라든지 설 새 없이 올면 달래주고 해야 하는데 와이프도 집에서 계속 애를 보면서 지친 상태니까.” <참여자 3>

### 하위 주제 3. 집에서도 양육을 위한 교대 근무가 이어지는 아빠

교대 근무가 익숙한 간호사 아빠는 퇴근 후 지친 몸이지만 아이를 돌보는 데 적극적이었고, 육아에 지친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다. 아내의 숙면을 위해 밤 육아를 전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브닝 (근무 후) 퇴근해서 (밤) 12시에 집에 가면 와이프 재우고 아침 한 7시

까지 제가 아기 보고, 와이프랑 교대해서 저는 잠깐 자고 또 출근하고 그러니까 저는 업무 시간 플러스 육아까지 해서 거의 하루를 따지면 ‘자는 시간 말고는 일하거나 애 보는 시간’ 이렇게 되고...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신생아 때는 나이트 킵(전담 근무)을 세 달 연속 신청해서, 제가 밤에 안 자고 낮에만 자는 생활을 한 달 내내 하니까 밤 육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에 보름만 일하고 나머지 보름의 밤 육아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밤에 와이프가 통잠 잘 수도 있고. 보통 나이트를 해도 오프 때는 낮에 깨고 밤에 자는 그런 사이클을 가는데, 한 달 정도를 낮에 완전히 자고 밤에 완전히 깨어있는 생활을 보낸 적이 있어요.” <참여자 5>

## 2) 범주 2.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이기에 더불어 이루어지는 양육

본 범주는 ‘병원 복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드는 많은 생각들’, ‘아이 하나에 어른 여럿이 필요한 양육 현실’ 2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 (1) 주제 3. 병원 복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드는 많은 생각들

이 주제에는 출산·육아 휴직을 마치고 병원에 복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근무 스케줄로 인해 이른 아침에 등원하고 늦은 시간에 하원하는 자녀에게 느끼는 미안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놓고 마음이 편치 않은 부모는 일과 양육을 둘 다 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였다. 하위 주제는 ‘복직과 함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의 염려’, ‘1등 등원 꼴등 하원, 우리 아이’, ‘생각의 전환을 통해 어린이집 등원을 받아들이고자 함’ 3개로 구성된다.

#### 하위 주제 1. 복직과 함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의 염려

복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부모는 아이

가 받을 스트레스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더 오랜 기간 부모의 돌봄을 받을 시기에 어린이집에 보내서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이제 막 돌쟁이 지난 아기거든요. (어린이집이라는) 외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고 또 너무 어릴 때, 말도 못 할 때 가서 혹시 다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엄마한테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시기에 아이를 외부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제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참여자 8>

“와이프가 육아 휴직하다가 복귀를 해야 하니까, 애가 한 13개월 정도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는데 부모랑 같이 있어야 하는 시기에 그렇게 보내니까 너무 짠한 거죠. 미안한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랑 같이 있는 게 나중에 보면 더 가치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후회를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참여자 3>

## 하위 주제 2. 1등 등원 풀등 하원, 우리 아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간호사 부모는 자신들의 근무 스케줄에 맞춰 아이를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고, 늦게 데려오는 것이 걱정되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12시간 정도 뒀다고 보시면 돼요.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가면 남아 있는 아이들이) 두세 명 정도 돼요. (일찍 보내고 늦게 데려오고 이렇게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고, 아기한테 좋지 않지 않을까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죠).” <참여자 4>

## 하위 주제 3. 생각의 전환을 통해 어린이집 등원을 받아들이고자 함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는 생각의 전환을 시도하며 일과 어린이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애를 쓰고 있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오래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우울하고 미안했는데 (부모가) 미안하게 생각하면 아이들도 되게 (부모에게) 미안하게 느낀다고 해서... 많이 마음으로 생각했죠. ‘아이의 양육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좀 많이 했죠.” <참여자 4>

“웬만하면 두 돌까지 (어린이집에) 안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복직을 하니 까 도저히(멋쩍은 웃음) 안 될 것 같아서... (어린이집에) 일찍 가면 또 일찍 가는 대로 장점은, 애가 적응력과 사회성이 좋아지고 친구들과한테서도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 믿고 일단 보내고 있습니다.” <참여자 8>

## (2) 주제 4. 아이 하나에 어른 여럿이 필요한 양육 현실

이 주제는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부부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제2, 제3의 양육자가 필요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위 주제는 ‘교대 근무 간호사 부부에게 양육지원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양육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모두가 양육지원자’, ‘피할 수 없는 양육지원자와의 갈등’, ‘양육이 시작되면서 없어진 엄마 아빠의 휴일’ 4개로 구성된다.

### 하위 주제 1. 교대 근무 간호사 부부에게 양육지원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참여자들은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무 스케줄 때문에 양육지원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곁에서 양육과 가사까지 도와주시는 양육지원자는 참여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였다.

“(남편의 부서인 검사실은) 주중에 당직이 자꾸 돌아오다 보니까 그 당직은 결국 병원 안에 스탠바이 해야 하고, (남편이) 당직을 할 때 불러 나가지 않더라도 제가 출근을 하면 어머님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계셔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참여자 2>

“같이 교대 근무를 하니까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불규칙하니까 아이를 전적으로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이며), 지금은 조부모님이 돌봐주시지만, ‘도움이 없거나 직장 어린이집이 없거나 이러면 돌보미도 구하기가 어려운 교대 근무인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육아를 함에 있어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부부라는 것은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 하위 주제 2. 양육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모두가 양육지원자

양육지원자가 없을 때는 제3자인 타인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꺼려져 친인척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다. 할머니, 외할머니, 할아버지 등 순차적으로 도움 요청의 단계를 밟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자녀를 맡겼을 때도 처음에는 쉽게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였으나, 차츰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일차적으로는) 이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이모가 안 되면 장모님, 장모님도 정 안 되면 저희 어머니께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2단계 3단계의 육아가 있으니까 아주 비혈연 관계의 제3자한테 요청한 적은 없었고.” <참여자 5>

“장모님이 잠깐잠깐 올라오셨고, 지금은 (아파트) 다른 단지에 사는 이모님, 지인도 아니고 그냥 생판 (남인) 네OO 카페에서 이렇게 (특정한 날에만) 이모님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믿어도 될까? 우리 집 비밀번호를 공개해 드려도 될까?’라는 의문과 ‘애들을 잘 봐주실까? 아니면 뭔가 훔쳐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장이랑 통장이랑 다 숨기고, 출퇴근할 때 가지고 다녔습니다.” <참여자 1>

## 하위 주제 3. 피할 수 없는 양육지원자와의 갈등

도움을 주는 양육지원자라 하더라도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아이를 돌봐주

시는 분의 입장을 고려하고자 하나, 자녀와 관련된 문제로 부딪치는 경우에는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양육지원자가 떠나기도 하였다. 반면에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어머니가 애 엄마랑 자녀 교육관 때문에... (어머니가) 24시간 옆에서 보시면서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으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아서 (애 엄마랑) 좀 갈등이... (있었고, 사이가) 조금 안 좋았는데 결국 (어머니 택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참여자 1>

“부모의 양육 태도와 본인(양육지원자)의 스탠다드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많이 부딪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기 봐주신 분은 아파도 병원에 잘 안 가세요. 그리고 민간요법 같은 거를 좋아하세요.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아토피한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원칙) 게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지만 (양육지원자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참여자 6>

“친정어머니께서는 항상 아이 손, 발이 차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에어컨을 틀고 있으면 아이들이 감기 걸릴 것 같다고 옷을 많이 입히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로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어느 정도 타협하여 손 싸게, 발싸게를 하는 대신 (내복은 긴팔이 아닌) 반팔을 입히고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여자 2>

#### 하위 주제 4. 양육이 시작되면서 없어진 엄마 아빠의 휴일

참여자들은 휴일에도 가능한 한 부모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양육지원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었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온전히 휴식을 누렸을 법한 휴일에도, 자녀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휴일이 휴일이 아니게 되었다.

“저 또한 오늘 오프인테 와이프가 데이(근무)여서 아침에 애들 다 챙기고 밥 먹이고 씻기고 학원 등록하러도 가고 둘째 아기도 등원시키고 했으니까 그래도 (10중에) 3에서 4 정도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쉬는 날에는 제가 (아기를) 보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연구 논문을 써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아기가 낮잠이나 밤잠 자는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하더라도, 오후에 부모님도 부모님 삶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는 또 제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쉬는 날에 도움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이만 보시게끔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미리 밥도 해놓고 음식도 해놓고 청소도 해놓아요.” <참여자 8>

### 3) 범주 3. 병원이라는 굴레에서 살아가는 간호사 부모

본 범주는 ‘갑작스러운 아이의 발병이나 사고에도 발목을 잡는 근무 스케줄’, ‘교대 근무하는 부모의 쓰라린 가슴’ 2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 (1) 주제 5. 갑작스러운 아이의 발병이나 사고에도 발목을 잡는 근무 스케줄

직장으로서의 병원 환경은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24시간 업무가 지속되는 특수성을 띠는 곳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자녀에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조차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기 쉽지 않고 누군가는 나의 빈자리를 메꿔야만 하는 구조 속에서 내 자식이 아픈데도 병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의 감정이 나타나는 주제이다. 하위 주제는 ‘자녀가 아플 때 당장 달려갈 수 없는 간호사 부모’, ‘근무 조정이 어려운 병원 간호사 부모의 서글픔’, ‘자녀로 인한 근무 조정 시 동료와 상사에게 느끼는 미안함과 고마움’ 이다.

#### 하위 주제 1. 자녀가 아플 때 당장 달려갈 수 없는 간호사 부모

참여자들은 갑작스러운 아이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상황에도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쉽게 휴가를 받기 어려웠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

할 때마다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이에게 미안해하였다.

“애가 버스에 조금 치였었는데 와이프랑 저 둘 다 이브닝 근무였고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이 오는 시간은 약 2시간 전이어서 미리 부르지는 못하고, 중간에 아기 엄마가 잠깐 애만 병원에 데리고 가고, 교통사고 처리만 하고 다시 (직장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중략) 정말 난감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면서 중간에 나오지 못하는 근무로 조금은 저 자신에 대해서도 애들을 챙겨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과 미안함이 컸습니다.” <참여자 1>

“유치원에서 ‘아기가 열이 펄펄 끓어서 지금 와주세요.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아빠도 일하고 있고 저는 이브닝 (근무) 출근을 해서 밤 11시까지 퇴근을 못 하는 상황일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직업 자체가 ‘애가 아파요. 저 지금 잠깐 갈게요(일찍 퇴근할게요).’가 안 되는 직장이다 보니까...” <참여자 2>

## 하위 주제 2. 근무 조정이 어려운 병원 간호사 부모의 서글픔

자녀를 키우면서 항상 근무 조정이 원활하지만은 않기도 하였는데, 근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되고 원활하지 않았을 때, 간호사로 병원에 근무하는 부모는 힘든 경험을 감내해야 했다.

“이브닝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랑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병동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데이라고. 일단 (20개월 정도 된) 애를 안고 출근을 했어요. 애는 막 이것저것 (세균이 있을지 모르는 주변을) 만지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옆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일반 사무직 직장이었으면 그렇게 급하게 불러 나갈 일도 없었겠지만, 병원은 그런 특수성을 가진 직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정보다는 (병원이 우선인)... (중략) 그때는 진짜 아찔했죠 (웃음).” <참여자 6>

“(애를 봐주시는) 엄마께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겼을 때 제가 그걸 조율을 하기

가 쉽지 않아서, 누구랑 근무를 바꿔야 하고, 제가 연차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됐을 때, 좀... 저희 엄마도 ‘병원을 10년 넘게 다녔는데 다음 달 스케줄을 아직까지 모르는 게 (말이 되니?)’ 그럴 때 좀 힘들었죠.”  
<참여자 2>

### 하위 주제 3. 자녀로 인한 근무 조정 시 동료와 상사에게 느끼는 미안함과 고마움

참여자들은 평소 잘 하지 않던 근무 요청도 자녀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했고, 나의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메꿔야 하는 업무 특성상 부탁을 하기가 부담스럽고 동료와 상사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미혼 간호사보다 양육이 우선인 간호사의 근무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는 상사와 부서의 분위기에 고맙고 그들의 배려 덕분에 절망적인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특히나 교대 근무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하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하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되는 건데, 사실 에 때문에 그거야 제 사정이고, 누군가는 오프가 잘려서 나와야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조금 그냥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부탁하면서도 많이 미안하죠. 근데 이제 아기 때문에 그런 거면 많이들 이해해 주고 잘 바꿔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근무를 못 바꿔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너무 절망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참여자 3>

“저는 되게 스트레스... 리퀘스트(근태 요청)를 평소에 사실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거 (근태 요청) 하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수간호사님께 되게 죄송스럽더라고요. 평생 안 하다가 (아이 때문에) 한 달에 6개 정도를 매번 리퀘스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와이프랑 근무가 또 중간에 안 맞으면 와이프가 동료 간호사들한테 요청해서 바꾼다거나 그랬습니다.” <참여자 1>

### (2) 주제 6. 교대 근무하는 부모의 쓰라린 가슴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부모가 아이에게 느끼는 가슴 시린 심경이 잘 드러나는 주제이다. 이 주제에는 ‘밤 근무를 위해 자녀와의 생이별을 겪는 엄마의 찢어지는 마음’, ‘교대 근무로 아기의 자는 모습만 보게 되는 간호사 엄마의 죄책감’, ‘자녀의 친구 엄마들과 어울릴 수 없는 아웃사이더 엄마’, ‘아이 양육을 부모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아빠의 미안함’ 4개의 하위 주제가 포함된다.

#### 하위 주제 1. 밤 근무를 위해 자녀와의 생이별을 겪는 엄마의 찢어지는 마음

밤 근무를 하는 엄마는 출근 및 퇴근 후의 수면을 위해 아기를 시택에 맡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헤어질 때 아기가 엄마를 찾으려 울면 마음이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직장으로 향해야 했다.

“제가 나이트(밤 근무) 전에 아이를 시택에 잠깐 2~3일 동안 데려다 왔는데 그때 엄청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엄마 엄마 하면서 우니까 애가... 마음이 좀 찢어졌던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이 해놓고(떼어놓고).” <참여자 8>

#### 하위 주제 2. 교대 근무로 아기의 자는 모습만 보게 되는 간호사 엄마의 죄책감

일, 양육과 더불어 대학원까지 병행할 때 참여자는 며칠 동안 아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일하며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한 회의감과 아이에게 신경 써주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부모로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러한 감정들은 같은 처지에 놓인 대학원 동기들과 공유하며 위로받기도 하였다.

“대학원 다닐 때 아침 5시에 나와 데이 근무하고 오후에 수업을 듣고 오면 밤 9시가 넘었는데 그렇게 3일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집에 있지만 3일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결국 죄책감이 되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대학원 동기들이 결국은

다 저와 비슷한 상황,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많이 도와주고 (위로받고)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 2>

### 하위 주제 3. 자녀의 친구 엄마들과 어울릴 수 없는 아웃사이드더 엄마

자녀 친구의 엄마들과의 교류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원만하지 않았다. 그들과의 틈새에 끼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교대 근무 간호사라서 놀이터에서 엄마들 간의 이야기에 많이 못 끼겠어요. 제가 매일 그 시간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략) 저의 감정은 좀 힘들죠.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참여자 2>

“아무래도 직장맘이니까 초등학교 가게 돼도 엄마들이랑 어울리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 헤쳐나가야 하니까. 저는 일을 하러 가야 하지 (엄마들과 함께) 커피숍에 갈 수가 없으니까 포기해야 할 건 포기해야 한다! (체념한 듯한 웃음).” <참여자 4>

### 하위 주제 4. 아이 양육을 부모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아빠의 미안함

양육지원자가 주변에 없어 지방에 거주하시는 아이의 조부모님 댁에 자녀를 보내고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아빠는 자녀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아이와 떨어져 살고 있어서) 아이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막상 (아이의 조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는) 아이를 보러 가면 잘 지내고 있어 보이지만 집에 돌아올 때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1>

## 4) 범주 4. 또 다른 굴레 코로나 팬데믹

본 범주는 ‘자녀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려는 외로운 몸부림’, ‘환자를 코로나로부터 지키기 위해 애씀’ 2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 (1) 주제 7. 자녀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려는 외로운 몸부림

일과 양육의 어려움 속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다. 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서도 일반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주제이다. 하위 주제는 ‘아기에게 코로나를 옮길까 봐 두려움’, ‘코로나 감염의 우려로 스스로를 고립시킴’, ‘코로나로 인해 나 홀로 겪는 출산과 육아의 고독한 싸움’, ‘코로나 중 심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기에게 드는 아쉬움’ 이다.

#### 하위 주제 1. 아기에게 코로나를 옮길까 봐 두려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간호사는 나로 인해 가정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건 아닐까 염려하여 퇴근 전·후로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하였다.

“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를 간호하다가 내가 환자로부터 코로나에 감염 되지는 않았을까 많이 걱정되고, (코로나 검사) 결과도 8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니까 제가 이미 퇴근한 후에 (검사 결과 통보)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코로나 한창 유행 때는 집에 가면 항상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고 애들을 봤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3년 동안 (남편이 병원으로 출·퇴근할 때) 기차를 매일매일 탔는데 기차라는 데가 공용 공간이고 밀폐 공간이니까 가족에게 혹시라도 코로나 감염을 시킬까 봐 본인이 엄청나게(강조) 조심하더라고요. 기차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이 최대한 혼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 연구해서 예약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외투도 뒤집어서 걸어놓고, 애들이 반기며 안기려고 하면 아빠 몸은 균으로 오염됐다고 샤워하기 전에는 못 만지게 하고요.” <참여자 6>

## 하위 주제 2. 코로나 감염의 우려로 스스로를 고립시킴

병원 근무 중에 의도하지 않게 코로나 확진자를 접촉하게 됐을 때는 혹시 모를 코로나바이러스를 가족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기숙사 생활을 자처했던 아빠도 있었다.

“(근무 중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30번 이상 받고, 당시에 (가족들이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하려고 기숙사에도 살면서 예방하려고 애썼어요.” <참여자 1>

## 하위 주제 3. 코로나로 인해 나 홀로 겪는 출산과 육아의 고독한 싸움

코로나 시기에 갑작스럽게 양수가 터져 응급 분만을 해야 했던 참여자는 출산의 고통과 조리원 생활을 혼자 하고 집에 와서까지도 아기에게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며 나 홀로 육아를 하였다.

“양수가 터져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코로나 검사를 미리 해놓은 사람이 없어서 가족 분만실인데 당일에는 아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만 들어가서 아이를 혼자 낳았어요. 조리원도 혼자 가고, 조리원에서도 코로나가 한창 유행 시기여서 공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산후도우미 도움 없이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있었어요.” <참여자 8>

## 하위 주제 4. 코로나 중심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기에게 드는 아쉬움

참여자는 코로나 유행 시기에 태어난 아기가 코로나에 감염될 것을 우려하여 수 개월간 집에서만 생활하도록 하며 조심했다. 아기에게 충분히 외부 자극을 주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애가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태어났을 때도 조부모님한테 축하와 예쁨도 받고

백일잔치 돌잔치 이런 거 다 했을 텐데 그런 과정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고 반년 이상 지날 때까지는 아기 입장에서 세상에 사람이 엄마 아빠 말고는 없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예 외부 활동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죠. 애한테 충분히 자극을 주고 경험해봐야 하는 것들을 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거의 코로나 중심에서 태어나고 자라왔기 때문에.” <참여자 3>

## (2) 주제 8. 환자를 코로나로부터 지키기 위해 애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환자에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에 따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호사 가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나타나는 주제이다. 하위 주제는 ‘환자 보호를 위해 가족의 즐거움을 포기함’, ‘환자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적은 장소를 찾게 됨’ 이다.

### 하위 주제 1. 환자 보호를 위해 가족의 즐거움을 포기함

간호사 부모는 환자에게 코로나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가정보다 엄격하게 외식이나 외출, 여행을 제한하였고, 어린 자녀들을 설득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아빠 엄마가 간호사니까 아픈 사람들을 돌봐야 해서 다른 애들보다 더 키즈 카페에 못 가고 외식을 못 한다 좀 더 조심스럽다 하면서 설득시키려 하지만 애들은 (아직 어려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남들은 해외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는데 (우리는) 못 하나’ 이런 것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웠고).” <참여자 1>

### 하위 주제 2. 환자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적은 장소를 찾게 됨

참여자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시기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들과 사람이 적은 장소를 주로 찾았다. 사람이 북적이는 장소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나로 인해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을 피하고자 사람과의 접촉 기회가 적은 드라이브나 캠핑 등을 통해 우울감과 답답함을 날려버리려는 간호사다운 해소법을 시도하였다.

“평일에 저는 엄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드라이브 많이 하고 집 근교로 한강, 북한강 보러도 많이 가고 아이들 데리고 소풍처럼 많이 다녔어요.” <참여자 2>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캠핑을 (다녔어요). 저희는 원래 해외여행을 1년에 한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유행으로) 그게 잘 안됐고, 그렇다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기도 껌껌하니까, 그러면 캠핑을 다니자 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캠핑을 가면 야외니까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 해소돼요.” <참여자 4>

## 5) 범주 5. 일과 양육의 안정 궤도에 진입함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간호사 부부가 그들의 근무 스케줄과 전문성 등 장점을 활용하여 일과 양육을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범주로, 주제는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양육에서 돋보이는 교대 근무’, ‘우리는 누가 봐도 간호사 부모’, ‘맞벌이 부모라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함’ 이다.

### (1) 주제 9.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양육에서 돋보이는 교대 근무

참여자들은 교대 근무를 이용하여 개인과 가족을 위해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하위 주제는 ‘자녀의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하는 간호사-간호사 부부’, ‘온전한 나만의 달콤한 시간’, ‘평일에 떠나는 여유롭고 경제적인 가족 여행’ 이다.

#### 하위 주제 1. 자녀의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하는 간호사-간호사 부부

근대 요청이 가능한 교대 근무의 이점을 살려 부부가 같이 자녀의 어린이집

행사 등에 참석하여 가족이 함께할 수 있었다.

“애들 스케줄에 따라서 (어린이집) 행사나 학예회 발표회가 있으면 그때는 둘 다 오프를 받고요.” <참여자 1>

## 하위 주제 2. 온전한 나만의 달콤한 시간

교대 근무의 또 다른 매력은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배우자가 직장에 갔을 때 나만의 온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집에서 이렇게 평일에 혼자 있는 시간이 좋잖아요. 애 어린이집 보내고 (배우자) 한 명 더 근무하고 있으면 혼자 집에서 온전히 보내는 시간도 나름 의미가 있고.” <참여자 5>

## 하위 주제 3. 평일에 떠나는 여유롭고 경제적인 가족 여행

교대 근무 간호사 부부는 평일을 이용한 가족 여행을 통해 비용도 절감하고 주말보다는 사람이 덜 붐비는 곳에서 편하게 이동하며 그들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평일에 어디 놀러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돈을 세이브 할 수 있었고 어디 콘도라든지 가면 좀 조용하게 차도 밀리지도 않고 여유 있게(갈 수 있는), 이런 점이 간호사로서 좀 더 좋았고. 아기 생기고 1년쯤 지나고 제주도도 한 번 가고 그다음에 한 2년쯤 지나고 베트남도 한 번 가고. (부부가) 오프가 맞으니까 갔겠죠?” <참여자 5>

“OO 랜드도 평일에 애들 유치원 땡땡이치고 가서 정말 한 시간씩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 1>

## (2) 주제 10. 우리는 누가 봐도 간호사 부모

간호사 부부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일반 부부와 조금은 다른 간호사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하위 주제는 ‘집에서도 계속되는 간호사의 습관’, ‘양육에 있어 간호사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순간’, ‘자녀의 응급 상황에서 아는 게 오히려 독이 되어 괴로움’ 이다.

### 하위 주제 1. 집에서도 계속되는 간호사의 습관

간호사 부모는 손 씻기가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 집에서 아기를 돌볼 때도 손 위생을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정환경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일반 부모보다 더 철저하게 소독하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때의 습관이 몸에 배어 아기에게도 간호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보며 멋쩍어하기도 하였다.

“제가 근무했던 과에 어떤 교수님은 열나는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 베드(침대)에 수기(손으로 직접 씌)로 BT 커브(Body Temperature Curve, 체온 곡선)를 그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애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앱 같은 거에 입력도 할 수 있고 다른 기록 방식도 많은데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해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웃음).” <참여자 6>

“코로나에 둘째 (아이)가 먼저 걸리고 한 3일 뒤에 첫째 (아이)가 걸리고 다음에 아기 엄마 걸리고 (격리) 해제될 때 제가 걸렸는데 이때 클리넬 (Clinell®, 병원용 소독 물티슈)을 사서 제가 주변의 문고리부터 다 닦았거든요. 엄마가 말하기에 아빠가 간호사라서 그런 것 같다고(웃음).” <참여자 1>

### 하위 주제 2. 양육에 있어 간호사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순간

참여자들은 자녀가 아플 때도 근거에 의한 대처를 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조기에 증상과 징후를 발견하여 병원에 일찍 방문하는 등 간호사 부모로서의 대처를 하였다.

“안티(Antibiotics, 항생제) 들어갈 시간에 자꾸 라운딩을(간호 순회) 안 오니까 (간호사실에) 가본 적이 있고(큰 웃음), (중략) 항생제 같은 거 약효 고려해서 인터벌(간격)을 (제대로) 두고 먹이려고 한다든지, 상처나 기저귀 발진 관리할 때 크림 종류도 다 인디케이션(Indication, 적응증)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도움이 됐죠. 또 URI (Upper respiratory infection, 상기도 감염) symptom(증상)이 있을 때 ‘중증은 아니다,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거는 좀 마음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 5>

“애가 아들이니까 많이 넘어지고 이마가 많이 찢어졌거든요. 그럴 때 좀 덜 당황하고 병원에 바로 데려오고 애가 뭘 먹으면 세테이션(진정치료) 할 때 토하니까 NPO (Nothing Per Oral, 금식)를 시키고.” <참여자 2>

### 하위 주제 3. 자녀의 응급 상황에서 아는 게 오히려 독이 되어 괴로움

간호사의 전문 지식은 항상 이롭지만은 않았다. 자녀가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로 많이 아플 때는 최악의 상황까지 떠올리게 되면서 오히려 괴로웠다.

“(애가) 응급실 갈 정도로 막 그렇게 아프니까 이게 아는 게 병이라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도 막 상상의 날개를 펴서 저 끝까지 한 번 갔다 오는 거죠. 애는 아파서 그러고 있으니까...” <참여자 3>

### (3) 주제 11. 맞벌이 부모라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함

이 주제에서는 일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로서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위 주제는 ‘휴일에는 직장인 엄마의 빈자리를 메우고자 노력함’, ‘아이의 성장에 맞춰 잘 대처하는 간호사 아빠’, ‘맞벌이를 통한 경제적 여유를 자녀에게 베풀’,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힘들지만 해 볼 만한 경험’ 4개로 구성된다.

### 하위 주제 1. 휴일에는 직장인 엄마의 빈자리를 메우고자 노력함

엄마들은 평소 직장에 다니느라 자녀와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보상하기라도 하듯 휴일에는 아기와 함께 보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해서라도 직장 생활로 빈 엄마의 자리를 메꾸고자 하였다.

“아기 엄마는 되게 대단한 게 나이트 마치고도 안 자거나 한두 시간 잠깐 자고 일어나서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간다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러더라고요.” <참여자 1>

“쉬는 날에 제 개인 활동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기들하고 같이 쇼핑을 하거나 키즈 카페에 가고, 교외로 나가서 바깥 활동을 하거나 공원 같은 데 가고... 대부분 주말이나 쉬는 날엔 남편과 같이 쉬게 되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 하위 주제 2. 아이의 성장에 맞춰 잘 대처하는 간호사 아빠

중환자실 출신의 간호사 아빠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영양, 위생, 신체 활동 측면에서 다양하게 맞춤 육아를 하고 있었다.

“남편은 중환자실 간호사고 저는 병동에서 일했는데 아이들을 케어할 때도 온도, 습도, 그리고 정말 정말(강조) 위생 이런 거에 대해서 중환자실 간호사 출신답게 철저하게 하는 느낌을 받았고, 환자 케어하듯이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저보다는 남편이 살림이랑 육아를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머리를 묶어본 것이 딸이 처음이라, 많이 서툴러서 유OO로 공부도 하고 머리가 안 아픈 고무줄도 찾아서 사고 힘들었습니다. (중략) (동네) 약사님이 ‘매번 아버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과 약국에) 오시는 거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간호사임에... 좀 더 애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긍정적이고 뿌듯한 생각을 했습니다. (애) 엄마도 아빠가 (육아를) 알아서 해서 좋다고 주변 아기 엄마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참여자 1>

### 하위 주제 3. 맞벌이를 통한 경제적 여유를 자녀에게 베풀

맞벌이를 하는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고 느꼈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음에 만족스러워했으며 자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맞벌이를 지속하기를 바랐다.

“친구들을 만나면 급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신입 때 월급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들한테 조금...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아기가 원하는 것을 사주거나 해 줄 수는 있었던 것 같고...” <참여자 1>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소득 안에서는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학원에) 보내고 있어서 예체능 같은 거는 (애들이) 더 하고 싶어 하면 (남편이) 좀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참여자 2>

“아기가 자랐을 때, 자라면서도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족함 없이 해 줄 수 있도록(웃음) 노력을 하고 있고, 열심히(강조하며) 모아놔야겠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 거고요.” <참여자 8>

### 하위 주제 4.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힘들지만 해 볼 만한 경험

간호사 부부로, 부모로 일과 양육을 하는 참여자들은 육아는 힘들지만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부부가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서로를 받쳐주고 있었다. 간호사 부부로서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들에게 주어진 장점들을 활용하여 함께 육아를 잘해 나가기를 바랐다.

“간호사 부부 너무 좋죠. ‘우리는 간호사 부부라서 이런 걸 못해’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간호사 부부라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라는 거를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육아도 간호사 부부라 어렵다기보다는 장점이 많이 있으니 너무 그렇게 ‘힘들다. 앞으로 고생길이다.’라고만 생각을 안 하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것

들을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부부가 다 의료인이라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 또 장점이 분명히 있긴 있어서.” <참여자 6>

## 6) 범주 6. 다음 차례의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모를 위하여

이 범주에서는 맞벌이 간호사 부모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현실적인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주제는 ‘그림의 떡인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들’, ‘간호사 맞춤형 육아 지원’ 이다.

### (1) 주제 12. 그림의 떡인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들

현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육아 지원 정책들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가 많아 무용지물처럼 느껴졌다. 하위 주제는 ‘복직 후 감당할 업무 변화에 대한 두려움’, ‘미래 걱정애 다 쓰지 못하는 육아 휴직’, ‘내가 쓸 수 없는 단축 근무제, 유연 근무제, 가족 돌봄 휴가 제도’ 이다.

#### 하위 주제 1. 복직 후 감당할 업무 변화에 대한 두려움

현실적으로 육아 휴직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근무지 이동을 하거나 보직이 변경되는 등의 제한 사항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복직 후에 현 부서나 업무에서의 변화가 염려되는 부모들은 육아 휴직을 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랐다.

“직무 변경에 대한 걱정(도 되고), 다시 3교대나 업무 변경하면 힘들니까 (육아 휴직을 하지 않았어요).” <참여자 4>

“육아 휴직을 하고 다시 (직장에) 돌아왔을 때 생판 낯선 곳에서 내가 또다시 적응해야 한다고 하는 게 실은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간호사는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일이고 그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내가 행정적인 것도 썩다 까먹었는데 돌아가서 (낯선 부서에서) 간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 하루 이

틀 오티(오리엔테이션)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8>

## 하위 주제 2. 미래 걱정에 다 쓰지 못하는 육아 휴직

아기가 매우 어린 시기에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때 육아 휴직을 더 쓰고 싶었지만, 경력 단절이 우려되어 또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엄마의 보살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육아 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 몇 개월을 남겨두었다.

“그때는 제가 너무 경력 단절이 될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됐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쓰려고 남겨뒀어요.” <참여자 2>

“선배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애가 학교 갈 때 또 (육아 휴직이) 필요하니 다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1년 아껴뒀다가 초등학교 입학 때 쓰려고요.” <참여자 8>

## 하위 주제 3. 내가 쓸 수 없는 단축 근무제, 유연 근무제, 가족 돌봄 휴가 제도

참여자들은 공공 기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육아 지원 제도들이 병원의 특수한 업무 특성상 적용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아쉬워하였고 조금이나마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내 일정을 조금 조절할 수 있게 휴가를 줘, 부부가 둘 다 간호사라고 하면 둘 중에 한 명은 긴급 육아 휴직이나 돌봄 휴가 같은 거 (주면 좋겠어요). (둘 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희(부부)는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참여자 2>

“병원 현실이 좀 어려울 수 있기는 한데 가정에서 생긴 응급한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회사에서 조금 (지원)해 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참여자 6>

## (2) 주제 13. 간호사 맞춤형 육아 지원

이 주제에는 간호사 부모에게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양육 지원 정책과 문화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다. 하위 주제는 ‘휴직보다는 일과 양육의 양립을 원함’, ‘교대 근무자를 위한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이 필요함’, ‘자녀를 둔 간호사의 근무를 배려하는 문화와 정책을 기대함’ 이다.

### 하위 주제 1. 휴직보다는 일과 양육의 양립을 원함

참여자들은 일과 양육 양립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간호사를 하면서 자녀 한 명도 키우기 버거웠기 때문에 둘째를 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교대 근무자들 상근직 종사자들 일과 양육 양립을 위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은 꼭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원하였다.

“(자녀가) 한 명일 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서 키우고 있지만 (자녀가) 둘이 되면 (부부 중) 한 명은 그만둬야 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인 거죠. 한 명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반반이에요. (둘째를 낳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그래도 한번 멈춰치게 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 3>

“육아 휴직을 늘리지 말고, 육아 휴직 갔다가 복직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 보다는 회사 다니면서 애를 키울 때 양립이 가능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참여자 7>

### 하위 주제 2. 교대 근무자를 위한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이 필요함

참여자들은 자녀를 이른 아침 시간에 봐주거나 저녁 늦게까지 봐주는 어린이

집을 찾기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양육지원자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늦은 시간까지 타인에게 맡기는 것도 불안하여 친족의 도움을 주로 받고 있었는데 간호사뿐 아니라 다른 교대 근무자들을 위해서도 근무 패턴에 맞게 자녀를 믿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제도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처음에 아기 임신하고 이렇게 (부부가) 둘이서만 키운다고 했을 때 알아봤던 게 24시간 어린이집 이런 것을 먼저 찾아봤었고, 아니면 ‘제일 늦게까지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어디인가?’ 이게 먼저 유치원의 선정기준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조금 늦은 시간까지 봐주는 곳이 확대되면 좋겠고 바람이기도 하고.” <참여자 1>

“교대 근무자를 위한, 꼭 병원 근무자가 아니더라도 (보육) 시설 자체가 데이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이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일찍 여는 데도 없고, 이브닝 근무자가 (퇴근 후 밤에 아이를) 찾을 수 있을 만큼 늦게까지 하는 곳도 없잖아요. 생각보다 교대 근무자가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많으니까 일할 때 편하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참여자 3>

### 하위 주제 3. 자녀를 둔 간호사의 근무를 배려하는 문화와 정책을 기대함

참여자들은 교대 근무를 할 때 자녀를 위한 근무 요청을 배려해 주는 문화가 필요하며, 육아와 관련된 근무 조정에 유연하기를 바랐다. 자녀에게 꼭 필요한 돌봄 공백이 생기면 눈치 보지 않고 응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며, 직장에서의 나의 빈자리를 백업해 줄 수 있는 보조 인력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병원에서는 근무 배려가 되지 않으면 사실 양육이 아예 되지를 않기 때문에 교대 근무라서 좋았던 거는 간호사로서 3교대라서 (근태 요청이 잘 받아들여서 양육이) 더 가능하지 않았나, 둘 다 상근이었으면 (양육하기가) 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여자 1>

“집안에서의 응급한 상황에 대처하려면 회사에서 응급하게 한두 시간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병원은 정말로! 상근과 교대 근무를 막론하고 그게 참 어려워서. 저는 (병원에서 공공 기관으로 이직한 후)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조금 겪어보니까 그게 좀 많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참여자 6>

### 3. 현상학적 글쓰기

현상학적 글쓰기는 연구 분석을 통해 나타난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에서 확인된 의미 있는 진술문을 총체적으로 서술하고, 경험에서 확인된 각각의 주제와 주제군의 공통적인 요인을 통합하여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한 것이다.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의 현상학적 글쓰기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간호사 커플은 병원 간호사로 일하면서 서로에게 업무에 대한 공감을 기대하였고, 부모님도 자녀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과 이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결혼 후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스케줄을 맞춰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또한, 병원 환경의 특수성을 서로 잘 알기에 업무상 고충을 나눌 때도 서로를 이해하고, 의학 용어 몇 마디만으로도 수월하게 대화가 이어졌다. 동료들끼리 푸는 스트레스도 간호사 부부여서 소통이 잘 되는 것에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 반면에 간호 업무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기진맥진해 돌아오는 배우자를 보며 잔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간호사-간호사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고, 주변에 간호사 부부를 접한 경험이 없어 임신하면서부터 교대 근무와 육아를 어떻게 병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첫 자녀를 품에 안은 부부는 두 시간마다 모유 수유를 하고 채우고 기저귀도 갈아주며 아기의 패턴에 맞춰 쪽잠을 자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 간호사 남편도 퇴근 후 피곤한 몸이지만 아내의 숙면을 위해 밤 육아를 맡기도 하였다. 집에서 양육을 위한 교대 근무가 이어지는 아빠의 모습이 다른

아빠들과 사뭇 달랐다. 아기의 수면 패턴이 정착되기 전까지 그렇게 부부의 고단한 불침번은 계속되었다.

출산·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해야 할 즈음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기가 받게 될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가 앞섰고 차후에 ‘부모의 돌봄을 받을 시기에 어린이집에 보내서 후회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더 큰 속상함은 아기를 어린이집에 일등으로 보내고 꼴등으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12시간 가까이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놓고 일을 하는 부부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 되뇌었다.

간호사-간호사 부부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무 스케줄 때문에 양육지원자가 필요했다. 양육지원자인 양가 어머니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때로는 주변의 친인척들도 돌아가며 자녀를 돌봐주었는데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어른 여럿이 필요한 양육 현실이었다. 양육지원자와의 갈등도 피하기는 어려웠는데 특히 양육지원자와 가치관이 충돌할 때는 서로 힘들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 양육을 담당한다는 마음이 집을 바탕으로 쉬는 날에도 자녀를 돌보고 양육지원자를 쉬게 하면서, 힘들지만 일과 양육의 연속선 상을 걷고 있다.

간호사-간호사 부부가 근무하는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24시간 업무가 지속되는 특수성이 있어 갑작스러운 아이의 발병이나 사고에도 근무 중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았다. 자녀가 아플 때 당장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죄책감이 들며 자녀에게 미안했다. 업무의 빈자리를 메꿔 줄 동료에게 부탁하기가 부담스럽고 죄송하면서도 자녀의 일이라면 흔쾌히 도와주는 그들에게 고마웠다.

간호사 엄마는 밤 근무를 위해 어린 아기를 시댁에 맡겼다. 아기가 울어서 마음이 찢어짐에도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은 병원으로 향한다. 바쁜 업무 때문에 아기 생각을 잠시 잊었는데 가족들이 보내주는 아기 사진을 보며 ‘아기가 잘 크고 있구나’ 위로를 받았다. 대학원에 다닐 때는 데이 근무를 마치고 수업 후 밤늦게 집에 가느라 같은 집에 살면서도 며칠 동안 잠자는 아기의 모습만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일하며 아기를 키우는 것이 회의감이 들고, 아기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다. 간호사 엄마는 교대 근무로 인해 자녀 친구의 엄마들과도 교류

가 원만하지 않았다. 일하러 직장에 가야지 정보 교류를 위해 커피숍에 갈 수가 없었다. 그들과의 틈새에 끼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 또한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자녀를 돌봐줄 양육지원자가 주변에 없어 지방에 계신 아이의 조부모님 댁에 자녀를 보내고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부모는 아기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고 자녀에게 미안했다. 그렇게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는 교대 근무를 하는 부모로서 쓰러린 가슴을 안고 살아간다.

병원이라는 굴레에서 살아가는 부부에게 또 다른 굴레인 ‘코로나 팬데믹’이 들이닥쳤다. 의료 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부부는 아기에게 코로나바이러스를 옮길까 두려워 퇴근 후에는 전신을 철저히 씻은 후에야 아기를 만났고, 근무 중에 코로나 확진 환자를 간호했을 때는 가족에게 코로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갑자기 양수가 터져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코로나 검사를 미리 해 놓은 가족이 없어 가족분만실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고, 조리원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자 생활했다. 집에 와서도 아기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다.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운 육아였지만 부모이기에 감내했다. 코로나 중심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기의 각종 잔치에는 아무도 초대하지 못했고, 아기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외부 자극을 주지 못해 미안하고 아쉬워하였다.

간호사-간호사 부부는 환자를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족의 외식이나 외출을 자제했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키즈 카페에 가자고 조르는 아이들을 설득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시기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이 적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등 간호사다운 해소법을 시도하였다.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부부는 교대 근무의 이점을 살려 부부가 함께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배우자도 출근한 날에는 온전한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평일에 떠나는 가족 여행은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 모두를 절약할 수 있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도 있어 경제적이다.

이들 부부는 누가 봐도 간호사-간호사 부부임을 알 수 있는데, 아기를 만지기 전에 손 위생은 기본이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집안 환경 소독도 필수였다.

아기가 아플 때는 간호 전문성을 발휘하여 기본적인 대처를 할 수 있어 뿌듯했다. 하지만 아는 게 병이라고 아기가 심하게 아플 때는 최악의 상황까지 떠올리게 되면서 오히려 괴로웠다.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는 평소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한 만큼 휴일에 최대한 놀아주고자 하였고, 아이의 성장 발달에도 부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경제적 활동을 통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간호사 부부로서 쉽지만은 않지만,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과 양육을 잘 해내고 싶어 하였다.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 지원 정책은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부모에게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아쉬워하였고, 교대 근무자들도 육아 지원 제도를 조금이나마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육아 휴직 후 복직할 때 감당할 병원 업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육아 휴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다가왔고, 아기일 때 육아 휴직을 다 쓰고 싶어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엄마의 보살핌이 또 필요하므로 육아 휴직을 남겨두기도 하였다.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가 자녀를 한 명도 키우기 버거운 현실에서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시간도 교대 근무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달라지기를 바랐다. 또한, 자녀를 둔 간호사의 근무를 배려하는 문화와 정책이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간호사-간호사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

## V. 논의

본 연구는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 시행된 현상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인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부족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동일한 대상자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 도출된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을 구성하는 범주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은 ‘동료이자 부부, 간호사-간호사 커플에게 아이가 생김’,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이기 에 더불어 이루어지는 양육’, ‘병원이라는 굴레에서 살아가는 간호사 부모’, ‘또 다른 굴레 코로나 팬데믹’, ‘일과 양육의 안정 궤도에 진입함’, ‘다음 차례의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모를 위하여’의 6개의 범주와 13개의 주제로 나타났다.

첫 번째 범주는 ‘동료이자 부부, 간호사-간호사 커플에게 아이가 생김’으로 주제는 ‘공감 백배, 우리는 간호사-간호사 부부’, ‘자녀의 탄생으로 인한 고민과 고된 몸’이다. 참여자들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업무상 조언을 공유하고 대화가 수월한 반면에 서로의 고충을 너무 잘 알아 애잔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이는 동종 직업을 갖는 부부에 관한 Cho (2015)의 연구에서 군인 부부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부분과 상통한다. 또한, Oh (199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 변수로 동료 간호사의 지지가 가족의 지지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동료이자 가족인 간호사 부부는 사회적 지지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리라 예측할 수 있다. 2시간마다 모유 수유를 하고 재우느라 고된 희생을 감당하는 엄마의 모습은 Kim과 Chang (2008)의 연구에서 도출된 ‘밤새우며 치루는 전쟁 같은 100일’과 일치한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변화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한 어머니로서의 역할 전환이 큰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Heinicke, 1995) 하므로 이 시기에 배우자의 지지가 중요한데(Simpson et al., 2003; Smith & Howard, 2008),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남편은 퇴근 후 힘들지만, 아내를 배려하여 밤 육아를 전담하면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두 번째 범주는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이기에 더불어 이루어지는 양육’으로 주제는 ‘병원 복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드는 많은 생각들’, ‘아이 하나에 어린 여럿이 필요한 양육 현실’이다. 간호사 부부는 복직을 위해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자녀가 받을 스트레스에 대해 염려하고 미안해 하였다. 학령전기의 어린 아동은 위험에 대한 경험이나 판단이 미숙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Lee et al., 1997), 부모의 역할 긴장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Hill et al., 2001). 이러한 이유로 어린 아동을 보육 시설이나 대리 양육자에게 맡기는 취업모는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여 조직에 몰입하기 어렵거나 심리적 고충이 있다(Yang & Shin, 2011)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었다. 참여자들의 양가 어머니들뿐 아니라 주변의 친·인척들도 돌아가며 자녀를 돌봐주셨는데 Kim과 Chang (2008)의 ‘주위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양육이 이루어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또한, 자녀 양육이 시작되면서 엄마 아빠의 휴일도 사라지게 되었는데 Heo (2018)의 연구에서 도출된 ‘퇴근과 함께 본격 시작되는 양육 경험’과도 유사하였다.

세 번째 범주는 ‘병원이라는 굴레에서 살아가는 간호사 부모’이고, 주제는 ‘갑작스러운 아이의 발병이나 사고에도 발목을 잡는 근무 스케줄’, ‘교대 근무하는 부모의 쓰라린 가슴’이다. 참여자들은 자녀가 아플 때도 교대 근무로 직장에서 벗어날 수 없어 자녀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근무 조정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이중고를 겪으며 일을 계속해야 할지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이는 Kim 등 (2018)의 ‘양육 스트레스, 죄책감을 느끼며,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와 일치하였다. 또한, 밤 근무를 위해 아기를 시댁에 맡기거나 일과 학업까지 병행하느라 며칠 동안 아기를 보지 못했을 때 일하며 아기를 키우는 것에 회의감, 미안함, 죄책감 등을 느끼기도 하였는데 Kim 등(2022)의 연구에서 전문간호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하여 직장, 학업, 육아를 병행하느라 찌든 삶을 버려내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네 번째 범주는 ‘또 다른 굴레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제는 ‘자녀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려는 외로운 몸부림’, ‘환자를 코로나로부터 지키기 위해 애씀’이다. 감염 예방행위는 감염으로부터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의료종사자를 지키는 간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의료진의 감염은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면역 저하 환자

에게도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격리 조치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 예방행위의 수행은 중요하다고 하였다(Shim, 2019). 참여자들이 의료진이자 부모로서 코로나에 대처하는 행동은 Kang 등(2021)의 연구에서 도출된 ‘스스로 엄격히 자신의 일상을 제한함’이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간호사를 소명의식, 사명감 등 고귀한 직업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직업으로 보도한 신문기사(Choi et al., 2021)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섯 번째 범주는 ‘일과 양육의 안정 궤도에 진입함’으로 주제는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양육에서 돋보이는 교대 근무’, ‘우리는 누가 봐도 간호사 부모’, ‘맞벌이 부모라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함’이다. 참여자들은 교대 근무를 이용하여 양육과 개인적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Lee 등(2015)의 연구에서 도출된 ‘교대 근무를 이점으로 활용함’과 일치한다. 참여자들은 맞벌이를 하면서 휴일에는 자녀와 최대한 함께 놀아주려고 노력했다. 이는 Kim과 Chang (2008)의 연구에서 도출된 ‘하루 정도는 아이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가짐’이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자녀의 인지능력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며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Heo, 2018) 참여자 아빠들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양육에 적극적이었다. 적은 봉급의 보상체계는 간호사의 이직 결정 요인이 되기도 하고, 높은 봉급은 직무 만족에 대한 지각을 보이기도 하였는데(Oh, 1997) 참여자의 대다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부부 합산 월 소득이 701만 원 이상임을 감안할 때 급여는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맞벌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풍족하게 베풀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Kim 등(2013)의 연구에서 도출된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의도적인 행동이나 물질로 보상하려 함’과는 차이가 있었다.

여섯 번째 범주는 ‘다음 차례의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모를 위하여’이고, 주제는 ‘그림의 떡인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들’, ‘간호사 맞춤형 육아 지원’이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고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평일 문 여는 시간은 7시 30분에서 8시 사이가 61.2%로 많고, 다음으로 7시 30분 이전이 19.5% 이었다(Yang et al., 2021). 문 닫는 시간은 57.3%가 19시 30분에서 20시 사이에 문을 닫고, 21시 이후는 15.5% 이었다. 이는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출·퇴근 시간과는 일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참여자들은 일과 양육의 양립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근무 패턴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im 등(2018)이 3교대 근무에 적합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한 부분과 일치한다.

본 연구는 Colaizzi 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해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의 본질을 드러내어 연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밝힐 수 있었다.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나, 실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도들은 3교대 간호사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간호사에게까지 적용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2021년 병원간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 지원이 없는 병원이 45.9%로 가장 많았고, 직장보육 시설 설치 운영이 33.0%였으며, 보육 시설 운영시간도 낮변, 초변 근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인 06:30~23:00까지 운영하는 병원은 9개(8.4%), 24시간 운영이 1개(0.9%)였다(Kim et al., 2021). 또한, 2022년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사직률은 15.8%, 사직 사유는 ‘업무 부적응’이 15.4%로 가장 많았으며, 휴직 사유는 ‘육아 휴직’이 68.5%로 가장 많았다. 근무연수별 사직률은 1년 미만이 34.4%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규간호사 사직률은 52.8%에 달했고, 사직 사유는 역시 ‘업무 부적응’이 32.6%로 가장 많았다(Lee et al., 2022). 이러한 높은 이직률 때문에 한국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중 가장 많은 간호대학 졸업생을 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OECD, 2023). 현장 경력을 가진 전문가인 경력 간호사의 확보는 환자 안전과 병원 생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의 사직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경력 간호사가 병원에 남기 위해서는 결혼과 육아를 하는 간호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육아와 관련한 인력 공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백업 시스템을 확보하고 직장보육 시설 설치 운영 확대 및 병원 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 병원 차원에서의 일-양육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제

도 시행과 지원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저출산 사회를 이끄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Song et al., 2014). 그러므로 국가가 추구하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는 꼭 필요한 부분이며 병원이 의지를 갖고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호사-간호사 부부는 간호사와 일반 직장인 부부 혹은 일반인 맞벌이 부부와는 다른 육아 경험을 하고 있었다. 특히 간호사-간호사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간호사 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로는 첫 시도였고, 그 결과 간호사 부부가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것조차 버거워 하나밖에 못 낳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민하지 않고 아기를 낳기 위한 문화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직장의 배려와 병원 차원의 적극적인 양육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밝힌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양육지원자도 일반인 부부의 양육 지원자와는 또 다른 현상(양육을 위한 상시 대기, 교대 스케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다. 더불어 경력자의 보유가 환자 안전이나 환자 간호와 관련한 병원의 생산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간호사의 사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을 위한 병원 차원의 양육 정책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근거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은 어떠한지와 그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경험은 43개의 하위 주제, 13개의 주제,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6개의 범주는 ‘동료이자 부부, 간호사-간호사 커플에게 아이가 생김’,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에게 더불어 이루어지는 양육’, ‘병원이라는 굴레에서 살아가는 간호사 부모’, ‘또 다른 굴레 코로나 팬데믹’, ‘일과 양육의 안정 궤도에 진입함’, ‘다음 차례의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모를 위하여’ 이다.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의 과정을 겪으면서 부모의 역할과 의미를 깨달아 맞벌이 간호사 부모로 자리매김해 갔다. 본 연구의 결과로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의 의미와 가치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사 부부는 일반 맞벌이 부부와는 다른 육아 경험을 하고 있으므로 병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사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력자의 보유는 환자 안전이나 간호를 통한 병원의 생산성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경력자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부부에게 적합한 병원 차원의 양육 정책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자녀 발달 시기별(영·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양육 경험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 시기에 출산한 간호사 엄마의 양육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수행을 제언한다.

셋째,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양육 지원자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 수행을 제언한다.

## 참고문헌

- Cho, J. H. (1996). A Phenomenologic Study on the Married Nurse's Experience of Child Rearing.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2), 182-201.
- Cho, S. W. (2015). A Study for Work and Family Compatibility of 'Military Couples' Females in the Army.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 and Science, 71*(3), 1-37. <https://doi.org/10.31066/kjmas.2015.71.3.002>
- Choi, H. N., Oh, E. G., & Lee, J. Y. (2021). The Image of Nurses in Newspaper Articles during COVID-19 Era.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11), 626 - 637.
- Choi, J. H. (2005). Family Stress, Coping Strategy, and Job Satisfaction in Dual-earner Couples - Comparison of Husband and Wife in Dual-earner Coupl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3*(10), 55-68.
- Colaizzi, P. F. (1978).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48-71.
- Creswell, J. W. (2010).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Sage Publication. (Cho, H. S., Jung, S. W., Kim, J. S., Kwon, J. S., Trans.).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7)
- Eom, M. J. (2021). *A Narrative Inquiry on Experience of Working Parents with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 Heinicke, C. M. (1995). Determinants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M. H. Bornstein (Eds.), *Handbook of parenting: Vol. 3. Status and social conditions of parenting* (pp.277-303). Mahwah, NJ: Erlbaum.
- Heo, D. N. (2018). *Nurture experience research of father by main carer : focus on double-income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Hill, E. J., Hawkins, A. J., Ferris, M., & Weitzman, M. (2001). Finding an extra day a week: The positive influence of perceived job flexibility on work and family life balance. *Family Relations*, *50*, 49-58. <http://dx.doi.org/10.1111/j.1741-3729.2001.00049.x>
- Joo, A. R.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s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the Dual Earner Coupl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2), 221-229. <http://dx.doi.org/10.5807/kjohn.2011.20.2.221>
- Kang, S. J., & Kim, S. Y. (2011). The Relationship Among Nurses' Parenting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4), 508-515.
- Kang, S. Y., & Lee, H. K. (2012). Phenomenologic study on the experience of labour and burnout among married female nurses. *Women's Studies Review*, *29*(1), 41-78.
- Kang, Y. A., Lim, K. C., Kim, J. H., Leem, C. S., & Choi, J. H. (2021). Lived Experiences of Nurses in Taking Care of Patients in COVID-19 Pandemic in Kore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6(2), 122-138.

Kim, B. H., Kim, G. J., Park, I. S., Lee, G. J., Kim, J. K., Hong, J. J. et al. (1999).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 Focused on Giorgi, Colaizzi, Van Kaam Metho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Korean Nursing*, 29(6), 1208-1220.

Kim, G. Y., Cho, Y. H., Kang, T. R., Kim, J. S., Park, M. A., & Kim, M. Y. (2021). *A Survey on the Working Conditions of Hospital Nurses*. Seoul: Hospital Nurses Association, 422-446.

Kim, J. H., Kim, Y. H., Kim, J. H., Kim, Y. H., & Kim, J. H. (2022). The Experience of Gaining Admission in Graduate School Advanced Practice Nursing Programs during the COVID-19 era.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7(2), 122-137.

Kim, J. I., Yeom, J. W., Park, S. K., Jeong, H. H., Min, U. J., Park, S. H., et al. (2018). Experience of Conflict in Three Shift Nurses Rearing more than Two Kids: Phenomenological Stud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4(3), 252-264. <https://doi.org/10.4069/kjwhn.2018.24.3.252>

Kim, J. Y. (2003). Social Child Care Options and the Meaning of Motherhood.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3(3), 197-218.

Kim, K. E., & Chang, Y. J. (2008). A hermeneutics phenomenological study on working mothers' experiences of rearing their firstborn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9, 31-33.

Kim, K. H., & Cho, B. H. (2000). An Ecological Approach to Analysis of

Variables i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1(4), 35 - 50.

Kim, K. J. (2012).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for Nurses: Challenges and Research Direction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6(1), 247-258.

Kim, L. J., & Yoon, C. H. (2000). An Ecological Study on Working Mother's Parenting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38(12), 47-58.

Kim, N. H., Lee, E. J., Kwak, S. Y., & Park, M. R. (2013).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arenting Burden of Working Mother with Young Childr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3), 188-200.

Kim, S. Y., Kim, S. M., & Lee, K. Y. (2011). A Qualitative Study on Dual Earner Families' Work and Family Lives for Ideal Work-Family Balanc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1), 93-116.

Kim, Y. S., & Kwon, M. K. (2010). Nurse's Parenting Stres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3(2), 86-94.

Ko, M. Y. (2004).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physically abus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1), 71-102.

Kwon, Y. S. (2006). *Employment nurse child care and family-related variables and job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Lamb, M. E. (1986). *The changing roles of the fathers.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ed. M. E. Lamb, New York: John Wiley & Son.
- Lee, I. J., & Kim, M. Y. (2014).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marital conflict in dual earner couples with children in early childhoo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5(3), 127-149.
- Lee, J. Y. (2016). *A Study on the Children Raising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Dual Income Nursing Coup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JeollaNamdo.
- Lee, K. J. (2011, February 22). Nurse family - Male Nurse Married to Two Brothers Nurses.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Print.asp?sSection=104&idx=15744>
- Lee, K. M., & Yeo, H. K. (2022). Experiences of Dual-Career Women Regarding Conflicts in Rearing Pre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38, 103-128. <http://dx.doi.org/10.23905/kspcc.38..202205.004>
- Lee, K. S., Kang, Y. H., Jung, M. R., Bae, S. Y., & Park, H. S. (1997). *Safety education for infant and toddler*. Seoul: Yangseowon.
- Lee, K. Y., Kwon, E. J., Shim, W. H., Choi, E. J., Choo, Y. S., & Ko, M. H. (2022). *A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ing Workforce Placement*. Seoul: Hospital Nurses Association, 74-104.
- Lee, M. S. (2005). *Understanding nursing practice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Gyeonggi: Koonja.

Lee, M. S., Ko, M. H., Son, H. M., Kim, J. H., Kang, S. R., Oh, S. E., et al. (2018). *Qualitative research*. Seoul: Soomoonsa.

Lee, N. I. (2004). *Phenomenology and hermeneutic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ation Center.

Lee, N. I. (2014).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A Horizon in Applied Phenomenology*. Gyeonggi: Hangilsa.

Lee, S. M. (2013). *Job Satisfaction among Middle Aged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Lee, Y. S., Lee, S. M., Lee, J. S., Lee, H. M. (2015). The lived experiences of child rearing with specific focus on the nurses on three-shift schedule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6(2), 71-84. <http://dx.doi.org/10.22284/qr.2015.16.2.71>

Lim, J. Y., Do, K. H., Rhe. H. W., Moon, Y. K., Bae, K. J., Song, H. Y., et al. (2017). *Infanc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Gyeonggi: Community.

Lincoln, Y. S., Guba, E. G. (1985). *Effective Evaluation*(Eds.). San Francisco: Jossey & Bass Publication.

Mamene, M., Azadi, H., Saraei, Z., Mohammadi, S., Nikbina, M., & Azadi, A. (2022). Comparison of Marital Satisfaction of Nurse Couples and Those Whose Spouse is Not a Nurse and Predicting Factors That Determine Their Marital Satisfaction. *Shiraz E-Medical Journal*. Briefland.

<https://doi.org/10.5812/semj-12252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1). *2021 Women's Life by Statistics*.

Retrieved October 16, 2022 from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Oh, J. W., Moon, Y. S., & Park, I. S. (2013). A Study of nurses' working stress, child-rear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10), 469-481.

Oh, M. J. (1997).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Turnover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4*(2), 193-216.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3). *Nurses*. Retrieved June 08, 2023 from <https://data.oecd.org/healthres/nurses.htm>

Park, H. (2014). *The effects of three-shift work nurse husband's social supports and foster care characteristics on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Park, J. H. (2015). The effect of work-family role conflict and spousal support resources on parenting stress among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9*(3), 41-62.

Park, Y. K., Yi, J. Y., Lim, S. R., Jang, H. R., Kang, H. J., & Kim, J. S. (2014). Parenting Stress, Parenting Guilt Feelings, Separation Anxiety and Alternative Care in Hospital-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7), 302 - 311. <https://do->

- Shim, S. Y. (2019). *Factors influencing the compliance of Blood-borne infection prevention in small non-teaching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 Shin, K. R., Jo, M. O., & Yang, J. H.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press.
- Shin, Y. S., Lee, S. H., Lee, Y. H., Choi, B. H., Park, J. H., Kim, E. A., et al. (2022). *A Survey on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of 2020*. Sejong City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Simpson, J. A., Rholes, W. S., Campbell, L., Tran, S., & Wilson, C. L. (2003). Adult attachmen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172-1187.
- Smith, L. E., & Howard, K. S. (2008). Continuity of parental soci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new moth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5), 763-773.
- Son, I. S., Kim, H. M., Han, S. S., & Park, K. O. (2010). Nurses' Demands on Child-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6*(1), 51-60.
- Song, Y. J., Lee, M. R., & Chun, H. Y. (2014). Parenting Stress Changes in Both of Continuous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fter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 A Focus on the Effects of the Values, Knowledge and Expectations about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5(5), 15-35. <https://dx.doi.org/10.5723/kjcs.2014.35.5.15>

Song, Y. K. (2016). *New graduate nurse's competency,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nd intention to leav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Statistics Korea (2016). *Results of the survey on additional items of the regional employment survey in the second half of 2015 (Employment status of double-income households and single-person households)*. Retrieved October 4, 2022 from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54797](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54797)

Statistics Korea (2022).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Survey Employment by Region by Industry and Occupation in the Second Half of 2021*. Retrieved October 4, 2022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3/index.board?bmode=read&bSeq=&aSeq=41781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3/index.board?bmode=read&bSeq=&aSeq=41781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Statistics Korea (2022). *Employment status of double-income households and single-person households by region in the second half of 2021*. Retrieved October 4, 2022 from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8841](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8841)

Statistics Korea (2022). *Number of nurses working in medical institutions by gender and age*. Retrieved October 4, 2022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I2001&vw\\_cd=MT\\_ZTITLE&list\\_id=J1\\_3\\_001\\_001\\_001\\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I2001&vw_cd=MT_ZTITLE&list_id=J1_3_001_001_001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Retrieved October 15, 2022 from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Yang, M. S., Lee, Y. J., Kim, D. H., Cho, S. I., Kim, K. J., Koo, J. Y., et al.  
(2021). *A Survey on National Child Care : Childcare Center Survey  
Report of 2021*. Sejong C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Yang, S. N., & Shin, C. S. (2011). Work-family conflicts: Challenges of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3), 70-103.

# 부 록

## <부록 1> 심의결과 통지서

Date : 2023/01/29

주소 : 055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TEL : 02-3010-7166

심의결과 통지서						
심의결과 통지일	2023년 01월 27일	심의방법	<input type="radio"/> 정규 <input checked="" type="radio"/> 신속			
접수번호	S2023-0105-0001					
과제번호	2023-0102					
과제명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양육 경험					
연구책임자	소속	외래간호팀	직위	대리	성명	김지혜
의뢰자	소속	HIT				
연구상세분류	생명윤리법	인간대상연구				
	연구대상	기타(맞벌이 간호사 부부)				
	연구구분	기타(1:1 개인심층면담 질적연구)				
	연구단계					
심의종류	신규과제					
심의결과	연구개시 및 지속, 변경사항 적용이 가능한 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기존대로 연구지속		
	보완심의 또는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결과	<input type="checkbox"/> 서경승인 <input type="checkbox"/> 보완(재심의) <input type="checkbox"/> 연구는 지속하나 이후 연구대상자에게 이루어지는 연구절차 중지 <input type="checkbox"/> 연구자에 대한 조치 <input type="checkbox"/> 승인된 연구의 조기종료 <input type="checkbox"/> 기각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보완(조건부) <input type="checkbox"/> 연구는 지속하나 보완 필요 <input type="checkbox"/> 연구는 지속하나 새로운 연구대상자 모집 중지 <input type="checkbox"/> 승인된 연구의 일시중지 <input type="checkbox"/> 반려 <input type="checkbox"/> 보완		
서류접수일	2023년 01월 19일		심의일	2023년 01월 25일		
지속심의주기	<input type="checkbox"/> 3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년		승인유효기간	2024년 01월 24일		
	<input type="checkbox"/> 연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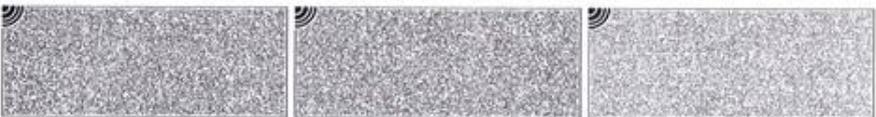
AMC IRB SOP (Ver 16.1\_01 Nov 2022)

**서울아산병원**  
 Asan Medical Center

**임상연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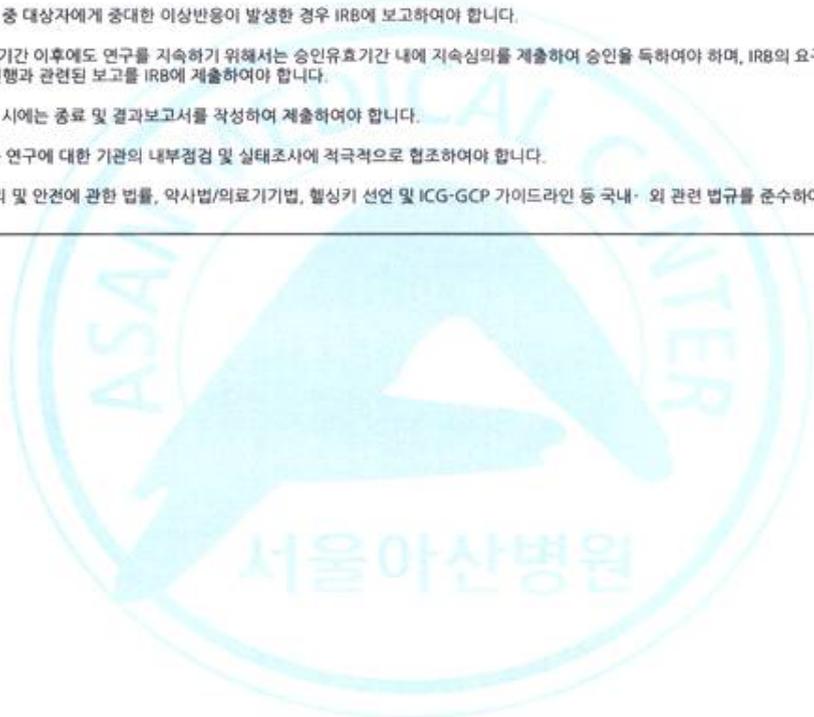
주소 : 055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TEL : 02-3010-7166

기타 심의 의견	
본 위원회에서는 연구자가 제출하신 신규과제를 심의한 결과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험수준평가: Level I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가 명시한 모집문건 게시방법 및 장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함.</li> <li>※ 본 임상연구심의위원회 표준작업지침에 따라 해당 연구의 지속심의 주기에 맞춰 지속심의를 제출 및 승인 받아야 하며, 연구가 종료된 경우 보고기한을 준수하여 종료보고를 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제출자료 목록 및 버전번호	
연구계획서(국문)(1.0) 증례기록서(1.0) 연구대상자에게 사용되는 설문지(1.0) 연구대상자 모집 문건(1.0) 인간대상연구 동의서교육 수료증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1.0)	
임상연구심의위원회/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류민희
	
<small>본 임상연구심의위원회는 국제표준화추진회의(ICH),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준(KGCP) 및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본 연구와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연구의 심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small>	

	
AMC IRB SOP (Ver 16.1_01 Nov 2022)	 <b>서울아산병원</b> 임상연구심의위원회 Asan Medical Center Institutional Review Board

[연구자 준수사항]

1. 승인된 임상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임상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변경사항에 대해 IRB 심의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승인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는 IRB통지일이 명시된 동의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연구대상자에게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설명에 근거하여 동의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 IRB의 승인을 받은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연구수행 중 대상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IRB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승인유효기간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승인유효기간 내에 지속심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IRB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연구종료 시에는 종료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승인 받은 연구에 대한 기관의 내부점검 및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의료기기법, 헬싱키 선언 및 ICG-GCP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AMC IRB SOP (Ver 16.1_01 Nov 2022)	<b>서울아산병원</b> 임상연구심의위원회 Asan Medical Center Institutional Review Board
------------------------------------	---------------------------------------------------------------------------

## 심의결과통지서

심의번호	2023R0001-002			
과제번호	2023R0001	구분	수정심의	
연구제목	원어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양육 경험		
	타원어	The Parenting Experiences of the Dual Earner Nurse-Nurse Couples		
연구책임자	성명	(20215014 )김지혜	직위	석사과정
	소속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전공		
심의분류	신규연구계획	심사종류	수정심의	
심의결과	승인	심사일자	2022. 12. 30	
승인유효기간	2022. 12. 30-2023. 12. 29	접수일자	2022. 12. 30	
중간보고기한				
심사서류	연구계획서 ver. 1.1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ver. 1.1 변경대비표 ver. 1.0			
시정요청사항				
권고사항				
<p>귀하가 신청한 위 연구과제에 대해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2022년 12월 30일</p> <p><b>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인)</b></p>				

## <부록 2> 증례기록지

Version : 1.0

■ 증례기록지

###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양육 경험

User : 김지혜 IP : 1.233.2.86 Print Date : 2023.04.21 02:09:30

CONFIDENTIAL

본 임상시험계획서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기밀 사항이며 시험책임자의 허락 없이 외부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작성 자	작성 일	년	월	일
연구대상자 영문initial 예: 홍길동→HKD	식별번호	_____		

## ■ 연구대상자 일반적 정보 설문지

일반적 특성	해당되는 곳에 '√' 표기 또는 기재해 주십시오.		
나이	만 ( ) 세	학력	① 전문대 졸업 ( )
성별	① 남 ( ) ② 여 ( )		② 대학교 졸업 ( )
종교	① 유 ( ) ② 무 ( )		③ 대학원 석사 졸업 ( )
			④ 대학원 박사 졸업 ( )
총 경력	만 ( )년 ( )개월	현 근무기관에서의 경력	만 ( )년 ( )개월
거주지	* 시/도 단위로 기재, 주말부부일 경우 모두 기재 [예]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현 근무기관	① 상급종합병원 ( ) ② 종합병원 ( ) ③ 병·의원 ( ) ④ 기타 ( ) : _____		
현 근무부서	① 병동 ( ) ② 외래 ( ) ③ 중환자실 ( ) ④ 수술실 ( ) ⑤ 기타 ( ) : _____		
교대근무	① 교대 ( ) ② 상근 ( )	혼인 기간	만 ( )년 ( )개월
휴직 경험	① 유 ( ) : 해당되는 사항에 '√' 표기해 주십시오. (중복체크 가능) 휴직 사유/휴직 기간 <input type="checkbox"/> 출산 / 만 ( )년 ( )개월간 <input type="checkbox"/> 육아 / 만 ( )년 ( )개월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 _____ / 만 ( )년 ( )개월간 ② 무 ( )		
동거인	① 유 ( ) : 해당되는 사항에 '√' 표기해 주십시오. (중복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친척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② 무 ( )		
자녀 수 자녀 나이	=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첫째부터 순차적으로 나이를 기재해 주십시오. ① 1명 ( ) , 연령 : 만 ( )세 ② 2명 ( ) , 연령 : 만 ( )세, 만 ( )세 ③ 3명 이상 ( ) : _____명 연령 : 만 ( )세, 만 ( )세, 만 ( )세, 만 ( )세		
대리양육자	① 유 ( ) : 해당되는 사항에 '√' 표기해 주십시오. (중복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친척 <input type="checkbox"/> 양육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② 무 ( )		
부부 합산 월수입	① 301-400만원 ( ) ② 401-500만원 ( ) ③ 501-600만원 ( ) ④ 601-700만원 ( ) ⑤ 701만원 이상 ( )	월 양육비 (※ 대리양육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① 50만원 이하 ( ) ② 51-100만원 ( ) ③ 101-200만원 ( ) ④ 201-300만원 ( ) ⑤ 301만원 이상 ( )

■ 1:1 개인 심층 면담 질문지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양육 경험에 대한 정보는 심층 면담형식의 1:1 인터뷰를 통해 수집할 예정으로 일반적인 질문을 시행한 후 양육 시 경험한 내용에 대해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진행한다.

[ 반구조화된 질문 ]

도 입 질 문	시작에 앞서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간호사-간호사 부부로서의 맞벌이 경험은 어떠한가요?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로서의 자녀 양육 경험은 어떠한가요?	
주 질 문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로서 자녀 양육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로서 자녀 양육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최근 몇 년간 COVID-19으로 인해 자녀 양육 경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 조 질 문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로서 자녀 양육을 하면서 주의하고 싶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자녀 양육을 위해 어떤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마 무 리 질 문	이야기하고자 한 것 중 하지 못한 것이나 더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면담 일자	년 월 일	장소
면담 시간	( )시 ( )분 - ( )시 ( )분 총 ( )분	인터뷰 진행자

## <부록 3> 연구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양육 경험 version 1.0

### 연구대상자 동의설명문

version : 1.0

1. 기본 정보			
연구제목	국문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양육 경험	
	영문	The Parenting Experiences of the Dual Earner Nurse-Nurse Couples	
연구책임자	성명	(국문) 김지혜	(영문) Kim Ji Hye
	직위	<input type="checkbox"/> 교수 <input type="checkbox"/> 박사과정 대학원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석사과정 대학원생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속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전공	
	연락처		이메일
<p>※본 연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동의서에 표기된 위험이나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 또는 연구와 관련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위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로서의 권리에 관한 문의 및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전화번호 02-3010-7285</li> <li>▶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전화번호 02-3010-7166</li> </ul>			

#### 1.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와 함께 맞벌이 가구 비중도 상승추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여성은 직장, 가사, 주 양육자 등 다중 역할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는 동일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 과중한 업무량, 고도의 긴장과 주의력 및 높은 책임이 요구되므로 간호사들은 고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는 최근 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간호사에게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형성하게 합니다.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문제는 높은 이직 의도로도 이어지기도 하지만, 간호사의 직장상사나 동료의 양육지지도가 만족스러울수록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 부담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여성 주류의 집단이나, 매스컴을 통한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사례가 몇몇 소개되었고,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탄생도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간호사 부부는 부부이자, 서로의 직업을 공유하는 동료입니다. 간호사 부부는 직업 특성상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와는 생활 방식과 양육 경험이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양적 연구를 통해서 생생한 양육 경험을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 간호사면허 소지자로서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를 대상으로 1:1 개인 심층 면담을 통해 자녀 양육 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둘째, 맞벌이 간호사 부부의 양육 경험을 기존 간호사 부부들이 참조할 수 있고, 예비 간호사 부부에게 간접 경험을 제공하여 양육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셋째, 간호사 부부를 위한 양육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 예상 참여기간 및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략의 전체 연구대상자 수

▶ 본 연구에 예상되는 참여 기간은 2023년 2월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승인 이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최소 1회 이상의 1:1 개인 심층 면담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수는 간호사-간호사 부부에 해당하는 남자 간호사 7명, 여자 간호사 7명으로 총 14명입니다. 연구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로서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기준

- A. 국내 간호사면허 소지자로서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에 해당하는 자 또는 부부
- B.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양육 경험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자
- C.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자
- D.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녹음과 필사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

제외기준

- A. 선천성 질환이 있거나 36주 미만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 간호사

4. 본 연구 참여에서 종료시까지 받게되는 검사 및 절차

▶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실 경우 최소 1회 이상 1:1 개인 심층 면담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면담 시간과 장소는 사전에 연구책임자가 연구대상자와 조율하여 면담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스터디 카페, 연구자의 근무 병원 개인집무실 등)로 정할 것입니다. 다만, 타 지역 거주 등으로 인해 대면이 어려운 경우는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담 시행 전에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동의설명문 제공 및 설명을 시행 후,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문지 조사가 한 차례 시행될 것입니다.

**각 면담에는 연구책임자가 함께할 것이며 모든 내용은 녹취될 것입니다.** 초회 면담 시간은 60분-1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개인 심층 면담 이후 충분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1~2회 정도 추가 면담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각 추가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내외가 될 것입니다.

심층 면담 외에 특별한 검사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5. 본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 본 연구 기간 동안 귀하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담 전날 충분한 숙면을 취하시고, 사전에 정한 면담 시간을 준수하셔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귀하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십시오. 부부가 모두 대상자인 경우에는 연구 내용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면담 후 배우자와 면담내용을 서로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6. 본 연구의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인 측면**

▶ 본 연구에서 실험적인 측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위험(부작용)이나 불편사항**

▶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개인 심층 면담을 위한 시간의 할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면담 장소와 시간은 연구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전에 연구대상자와 함께 계획할 예정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조율이 가능합니다.  
육아경험에 관한 심층 면담 시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만일 연구참여 도중 과거의 불편한 기억을 회상함으로써 인해 불편감을 느끼거나 연구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알려주시십시오.

**8.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이익이 없을 경우 그에 대한 명시)**

▶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국내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양육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육아 경험의 의미를 간호 학문적 차르라는 근거를 통해 간호사들과 공유함으로써 선배 간호사-간호사 부부로서의 동질감과 일체감 등을 느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있을 것이며, 연구 내용은 간호사 부부를 위한 양육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9. 본 연구에 관련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 방법 및 그 주체**

▶ 1:1 심층 면담 연구로 인해 귀하가 상해를 입으실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금전적 보상 유무, 참여 정도에 따른 조정 정도 및 연구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

▶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대상자에게는 1차 심층 면담 종료 후 감사의 답례품(외식상품권 2만원권)이 즉시 지급되며, 연구대상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 1차 심층 면담 종료 후, 그 이상 추가 면담 시에는 감사의 답례품(외식상품권 5천원권)이 1회에 한해 즉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 11. 연구 참여의 제한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동의 없이도 본 연구의 참여로부터 제한될 수 있습니다.  
A. 면담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가 면담을 계속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12.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연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한 경우라도 자유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

▶ 본 연구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귀하에게 달려있습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동의철회를 통해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 중단을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귀하의 결정은 향후 간호 업무와 육아를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동의철회의 이유에 대해 묻겠지만 귀하가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동의철회 시점에서의 연구결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귀하에게 동의를 구할 것이나 이 역시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귀하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자료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 13.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대책(이용 · 관리 · 파기)

▶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육아경험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귀하의 연령, 성별, 종교, 학력, 총경력, 현 근무기관에서의 경력, 거주지, 현 근무기관, 근무부서, 교대근무, 혼인 기간, 휴직 경험, 동거인, 자녀 수와 자녀 나이, 대리양육자, 월수입, 양육비, 양육경험과 관련한 면담내용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양육경험과 관련한 면담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그 외 일반적 특성은 증례기록지를 통해 종이 문서로 수집하게 됩니다. 이는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수집되며 연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개인정보는 연구참여 시작일로부터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연구책임자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관리됩니다. 모든 연구가 끝난 뒤 귀하의 개인정보는 연구목적으로 3년 동안 보관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문서 파쇄기와 컴퓨터 데이터 영구 삭제 방법으로 삭제 또는 파기처리 됩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관위원회 및 정부기관 등이 정하는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연구대상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정보는 국가 및 현행 법률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귀하는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위의 모든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 14. 신분의 비밀보장(자료의 열람 권한 설정 및 보관, 관리, 폐기 및 연구 결과 발표 시 연구대상자의 신원 보호)

▶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코드화하여 컴퓨터에 기록하므로 비밀유지가 되어 연구책임자만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에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보관되며 이후 폐기할 것입니다. 코드화된 정보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이 공유할 수 있으며 허락된 연구진 외에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도록 잠금 장치 사용과 암호사용 등을 통해 관리됩니다. 모든 자료는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열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연구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및 정부 기관에 의해 귀하의 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한 비밀유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출판될 경우 귀하의 신원은 데이터베이스, 연구결과, 논문 등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으며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15. 본 연구의 지속 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얻어지면 적시에 연구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16.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거나 연구와 관련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접촉해야 하는 사람과 연락처

▶ 본 연구의 참여와 관련하여 문의 및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성명: 김지혜, 연락처 (☎) >

ASAN Medical Center  
Institutional Review Board





## 연구대상자 동의설명문

Version : 1.1

1. 기본 정보			
연구제목	국문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양육 경험	
	영문	The Parenting Experiences of the Dual Earner Nurse-Nurse Couples	
연구책임자	성명	(국문) 김지혜	(영문) Kim Ji Hye
	직위	<input type="checkbox"/> 교수 <input type="checkbox"/> 박사과정 대학원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석사과정 대학원생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속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전공	
	연락처		이메일
<p>※본 연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동의서에 표기된 위험이나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 또는 연구와 관련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위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로서의 권리에 관한 문의 및 상담            ▶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 (Tel. 052-259-1893)</p>			

1. 연구의 목적
<p>▶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와 함께 맞벌이 가구 비중도 상승추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여성은 직장, 가사, 주 양육자 등 다중 역할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는 동일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 과중한 업무량, 고도의 긴장과 주의력 및 높은 책임이 요구되므로 간호사들은 고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는 퇴근 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간호사에게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형성하게 합니다.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문제는 높은 이직 의도로도 이어지기도 하지만, 간호사의 직장상사나 동료의 양육지지도가 만족스러울수록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 부담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p> <p>간호사는 여성 주류의 집단이나, 매스컴을 통한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사례가 몇몇 소개되었고,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탄생도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간호사 부부는 부부이자, 서로의 직업을 공유하는 동료입니다. 간호사 부부는 직업 특성상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와는 생활 방식과 양육 경험이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양적 연구를 통해서 생생한 양육 경험을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p>



**본 연구의 목적은**

- 첫째, 국내 간호사면허 소지자로서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를 대상으로 1:1 개인 심층 면담을 통해 자녀 양육 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 둘째, 맞벌이 간호사 부부의 양육 경험을 기존 간호사 부부들이 참조할 수 있고, 예비 간호사 부부에게 간접 경험을 제공하여 양육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셋째, 간호사 부부를 위한 양육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 예상 참여기간 및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략의 전체 연구대상자 수**

- ▶ 본 연구에 예상되는 참여 기간은 2023년 1월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이후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이며, 약 5개월 동안 최소 1회 이상의 1:1 개인 심층 면담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수는 간호사-간호사 부부에 해당하는 남자 간호사 7명, 여자 간호사 7명으로 총 14명입니다. 연구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 ▶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로서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기준**

- A. 국내 간호사면허 소지자로서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에 해당하는 자 또는 부부
- B. 의사소통이 원만하여 양육 경험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자
- C.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자
- D.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녹음과 필사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

**제외기준**

- A. 선천성 질환이 있거나 36주 미만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 간호사

**4. 본 연구 참여에서 종료시까지 받게되는 검사 및 절차**

- ▶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실 경우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1:1 개인 심층 면담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 면담 시간과 장소는 사전에 연구책임자가 연구대상자와 조율하여 면담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스터디 카페, 연구자의 근무 병원 개인집무실 등)로 정할 것이며, 이때 면담질문지 내용을 미리 알려드려 추후 면담 시 질문에 답변하실 때 당황스럽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타 지역 거주 등으로 인해 대면이 어려운 경우는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담 시행 전에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동의설명문 제공 및 설명을 시행 후,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문지 조사가 한 차례 시행될 것입니다.
- 각 면담에는 연구책임자가 함께할 것이며 모든 내용은 녹취될 것입니다. 초회 면담 시간은 60분~1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개인 심층 면담 이후 충분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1~2회 정도 추가 면담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각 추가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내외가 될 것입니다.



심층 면담 외에 특별한 검사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 5. 본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 본 연구 기간 동안 귀하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담 전날 충분한 숙면을 취하시고, 사전에 정한 면담 시간을 준수하셔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귀하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요. 부부가 모두 대상자인 경우에는 연구 내용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면담 후 배우자와 면담내용을 서로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 6. 본 연구의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인 측면

▶ 본 연구에서 실험적인 측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7.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연구대상자(연구대상자가 임부일 경우 태아, 수유부일 경우 영유아)에게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위험(부작용)이나 불편사항

▶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개인 심층 면담을 위한 시간의 할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면담 장소와 시간은 연구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전에 연구대상자와 함께 계획할 예정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조율이 가능합니다.  
육아경험에 관한 심층 면담 시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만일 연구참여 도중 과거의 불편한 기억을 회상함으로써 인해 불편감을 느끼거나 연구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알려주시요.

#### 8.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이익이 없을 경우 그에 대한 명시)

▶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국내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양육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육아 경험의 의미를 간호 학문적 자료라는 근거를 통해 간호사들과 공유함으로써 선후배 간호사-간호사 부부로서의 동질감과 일체감 등을 느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있을 것이며, 연구 내용은 간호사 부부를 위한 양육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9. 본 연구에 관련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 방법 및 그 주체

▶ 1:1 심층 면담 연구로 인해 귀하가 상해를 입으실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10.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금전적 보상 유무, 참여 정도에 따른 조정 정도 및 연구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

▶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대상자에게는 1차 심층 면담 종료 후 감사의 답례품(외식상품권 2만원권)이 즉시 지급되며, 연구대상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 1차 심층 면담 종료 후, 그 이상 추가 면담 시에는 감사의 답례품(외식상품권 5천원권)이 1회에 한해 즉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 11. 연구 참여의 제한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동의 없이도 본 연구의 참여로부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A. 면담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가 면담을 계속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12.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연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한 경우라도 자유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단, 이와 같은 철회가 연구참여 개시 이전에 이루어지고 시험참가에 대한 보상이 있었던 경우 보상금의 지급 여부)

- ▶ 본 연구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귀하에게 달려있습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동의철회를 통해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 중단을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귀하의 결정은 향후 간호 업무와 육아를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동의철회의 이유에 대해 묻겠지만 귀하가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동의철회 시점에서의 연구결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귀하에게 동의를 구할 것이나 이 역시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귀하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자료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 13.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대책(이용 . 관리 . 파기)

- ▶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육아경험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귀하의 연령, 성별, 종교, 학력, 총경력, 현 근무기관에서의 경력, 거주지, 현 근무기관, 근무부서, 교대근무, 혼인 기간, 휴직 경험, 동거인, 자녀 수와 자녀 나이, 대리양육자, 월수입, 양육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이는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수집되며 연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개인정보는 연구참여 시작일로부터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연구책임자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관리됩니다.
- 모든 연구가 끝난 뒤 귀하의 개인정보는 연구목적으로 3년 동안 보관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문서파쇄기와 컴퓨터 데이터 영구 삭제 방법으로 삭제 또는 파기처리 됩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다만,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관위원회 및 정부기관 등이 정하는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연구대상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정보는 국가 및 현지 법률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귀하는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위의 모든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 14. 신분의 비밀보장(자료의 열람 권한 설정 및 보관, 관리, 폐기 및 연구 결과 발표 시 연구대상자의 신원 보호)

- ▶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코드화하여 컴퓨터에 기록하므로 비밀 유지가 되며 연구책임자만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에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보관되며 이후 폐기할 것입니다. 코드화된 정보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이 공유할 수 있으며 허락된 연구진 외에는 다른 사람



은 볼 수 없도록 잠금 장치 사용과 암호사용 등을 통해 관리됩니다. 모든 자료는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열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연구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및 정부 기관에 의해 귀하의 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한 비밀유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출판될 경우 귀하의 신원은 데이터베이스, 연구결과, 논문 등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으며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15. 본 연구의 지속 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얻어지면 적시에 연구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16.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거나 연구와 관련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접촉해야 하는 사람과 연락처

▶ 본 연구의 참여와 관련하여 문의 및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성명: 김지혜, 연락처 (☎) >



## <부록 4> 연구 대상자 모집공고문

간호사 부부의 양육경험을 들려주세요~!

#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양육경험 대상자 모집



1. 모집 대상

- 국내 간호사면허 소지자로
-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 또는 간호사이면서 (부부 중 1인만 참여도 가능, 배우자가 타기관 근무자여도 가능)
-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간호사 (단, 선천성 질환이 있거나, 36주 미만 출생한 자녀를 둔 경우는 제외)

2. 연구 목적

- 맞벌이 간호사-간호사 부부의 양육경험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양육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양육경험을 들려주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3. 연구 방법

- 1:1 개인심층면담입니다.
- 연구자와 사전 상의 후 면담시간과 장소를 선정합니다.
- 1~2시간 정도 인터뷰가 진행되며
- 연구도중 불편감이 있을 시 언제든지 중단 가능합니다.
- 연구에 참여시 소정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4. 예측 가능한 부작용

- 중대한 이상반응의 위험성은 낮으나, 개인심층면담으로 인한 시간 소요 및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여 문의

1) 전화 : 010- [ ]  
2) 아산웍스 : [ ]  
김지혜 간호사

User: 김지혜 IP: 1.233.2.86 Print Date: 2023.04.21 02:18:36

## ABSTRACT

# The Experiences of Dual-Income Nurse-Nurse Couples in Parenting Preschool Children

Kim, Ji Hye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Directed by Professor

Kim, Yeon Hee, RN, Ph..D.

**Purpose** : This study attempted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experiences of working nurse couples in raising young children, and further, to identify ways to support their parenting.

**Methods** : The study participants were eight nurses who are in a dual-nurse marriage, with at least one child aged 1 to 6 years. The participants had the common experience of having raised young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from January to May 2023,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semi-structured open-ended question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as carried out in a cyclical manner utiliz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nd 222 meaningful statements, 43 subthemes, 13 themes, and 6 categories were identified as a

result.

**Results :** The six categories are as follows: 'Married nurse couples before and after children,' 'Nurse couples as partners in parenting,' 'Difficulties caused by the constraints of the hospital workplace,' 'Difficul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tegr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and 'For future working nurse couples.'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o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preschool parenting experiences of dual-nurse couples, as well as provide base data for hospital-level child care policies and measures to support nurse couples.

**Key Words:** Couples, Nurses, Parenting, Preschool Children, Qualitative  
-Research